

R E P O R T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2024.09.30.

이민
사건조사
연구소

제출문

서울문화재단 귀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진

책임연구원

장현선 (주)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연구원

홍선경 (주)장애파트너스그룹 팀장

연구보조원

이지현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원

김예나 (주)장애파트너스그룹 연구원

(주) 장애파트너스그룹

본 보고서의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I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조사 단계 및 방법	2

II 선행연구

제1절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관련 법령	15
제2절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련 연구	19

III 설문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25
제2절 조사 결과	27

IV FGI

제1절 응답자 특성	57
제2절 FGI 결과	58

V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75
제2절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정책 제언	78

VI 부록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설문지 양식	85
--------------------------------	----

표 목 차

[표 I-1]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3
[표 I-2] 청소년 문화예술인 유형 분류	4
[표 I-3] 전문가 의견수렴 참석자 명단	5
[표 I-4] 설문조사 개요	6
[표 I-5] 일반 청소년 조사 비교	7
[표 I-6] FGI 개요	7
[표 I-7] FGI 참여자	8
[표 I-8] FGI 주제	9
[표 I-9] FGI 세부 내용_청소년 문화예술인 당사자	9
[표 I-10] FGI 세부 내용_청소년 문화예술인 관계자	10
[표 II-1]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관련 법령	15
[표 II-2]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관련 지침	17
[표 II-3] 청소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및 연구	19
[표 II-4] 청소년 대상 조사	20
[표 III-1] 청소년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	25
[표 III-2] 일반 청소년 비교 자료 출처	26
[표 III-3] 일반 청소년 비교 자료 개요	26
[표 III-4] 청소년문화예술인 수면 시간	27
[표 III-5] 청소년문화예술인 수면 시간 부족 정도	29
[표 III-6] 청소년문화예술인 수면 부족 이유	29
[표 III-7] 청소년 문화예술인 여가 시간	30
[표 III-8] 청소년문화예술인 휴식/여가 시간 부족 이유	30
[표 III-9] 청소년문화예술인 신체 부상 경험 및 대처방식	32
[표 III-10] 청소년문화예술인이 불행한 이유	33
[표 III-11] 청소년문화예술인 스트레스 원인	35
[표 III-12] 청소년문화예술인 개인 학습 시간	36
[표 III-13] 청소년문화예술인 학교생활 만족도	37
[표 III-14] 청소년 문화예술인 직업 희망 이유	41
[표 III-15] 청소년 문화예술인 부모님과의 희망 직업 일치도	42
[표 III-16] 청소년 문화예술인 진로상담 불만족 이유	46
[표 III-17]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전환 상담 경험 및 진로 전환 상담 대상	48
[표 III-18]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	49

[표 Ⅲ-19]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변경 시기 적절성	50
[표 Ⅲ-20] 청소년문화예술인 의사결정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52
[표 Ⅲ-21] 청소년문화예술인 의사결정에 대한 교사/강사의 태도	52
[표 Ⅳ-1] FGI 응답자별 특징	57
[표 Ⅴ-1] 청소년 문화예술인 현황 결과 요약	75

그림 목 차

[그림 I-1] 조사 추진 체계	2
[그림 III-1] 청소년 문화예술인 수면 시간	27
[그림 III-2] 청소년 문화예술인 수면 시간	28
[그림 III-3] 청소년 문화예술인 여가 시간	30
[그림 III-4] 청소년문화예술인 신체적 건강 인식	31
[그림 III-5] 청소년문화예술인 신체적 건강 인식(중/고등학생)	31
[그림 III-6] 청소년문화예술인의 행복감	32
[그림 III-7] 청소년문화예술인의 불행한 이유	33
[그림 III-8] 청소년문화예술인의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	34
[그림 III-9] 청소년문화예술인의 자살 생각 경험	34
[그림 III-10] 청소년문화예술인의 개인 학습 시간	35
[그림 III-11] 학교생활 만족도	36
[그림 III-12] 청소년문화예술인 교육과정/분야별 학교생활 만족도	37
[그림 III-13] 학교 중도 포기 의사	38
[그림 III-14] 청소년문화예술인 학교 중도 포기 의사	38
[그림 III-15] 청소년문화예술인 학교 중도 포기 희망 이유	39
[그림 III-16] 청소년문화예술인 교육과정별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이유 응답 비율	39
[그림 III-17] 청소년문화예술인 전공선택 시기	40
[그림 III-18] 청소년 문화예술인 교육과정별 전공선택 시기	40
[그림 III-19] 청소년 문화예술인 분야별 전공선택 시기	40
[그림 III-20] 청소년 문화예술인 직업 희망 이유	41
[그림 III-21] 청소년 문화예술인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선택 비율	41
[그림 III-22] 청소년 문화예술인 진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43
[그림 III-23] 일반고등학생 진로정보 획득 경로	43
[그림 III-24]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정보 획득 경로 (교급별)	44
[그림 III-25]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정보 획득 경로 (교육 과정별)	44
[그림 III-26]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설정에 필요한 진로 정보	45
[그림 III-27]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상담 경험	45
[그림 III-28]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상담 만족도	46
[그림 III-29] 청소년 문화예술인 진로 전환 고려 경험	47

[그림 Ⅲ-30] 청소년 문화예술인 진로 전환 고려 이유	47
[그림 Ⅲ-31]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	49
[그림 Ⅲ-32]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변경 시기의 적절성	50
[그림 Ⅲ-33] 문화예술 중학생 의사결정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51
[그림 Ⅲ-34] 문화예술고등학생 의사결정에 대한 부모님 태도	51
[그림 Ⅲ-35] 청소년의 권리 수준 인식	53
[그림 Ⅲ-36] 청소년 온라인 권리 침해 경험	54
[그림 Ⅲ-37] 청소년문화예술인(대중/순수예술) 온라인 권리 침해 경험	54
[그림 Ⅳ-1] 순수예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현황 및 지원방향	76
[그림 Ⅳ-2] 대중예술 청소년 문화예술인 현황 및 지원 방향	77

I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 단계 및 방법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 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 비정상적인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취약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
-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다수 있었으나, 서울시가 최초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17.08)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18.03)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21.04)
 - (서울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3.12)
-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3.12)>에 근거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K-콘텐츠(케이팝, 드라마 등)으로 대변되는 문화강국의 위상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이면의 취약한 청소년 문화 예술인의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조례 주요 내용: 청소년 문화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체중 감량·성형 강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 방지 및 조기 대응을 위한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 지원
-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2. 조사 목적

- 청소년 문화예술인 현황 및 청소년 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이슈를 파악함
- 청소년 문화예술 권익보호사업 및 연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2절 조사 단계 및 방법

1. 조사 추진 체계

○ 본 조사를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FGI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음

[그림 1-1] 조사 추진 체계

1. 사전 준비		2. 전문가 의견수렴		3. 설문조사		4. FGI		5. 결과 분석	
1.1	연구 범위 설정	2.1	전문가 섭외	3.1	설문 문항 설계	4.1	FGI 대상 섭외 및 일정 조율	5.1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분석
		2.2	전문가 의견 청취	3.2	설문조사 실시	4.2	FGI 실시	5.2	최종보고회 운영 및 보고서 작성
				3.3	설문조사 결과 도출 및 분석	4.3	FGI 결과 도출 및 분석		

2. 사전 준비

1)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정의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 중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거나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일컫음. 이번 조사에서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함
 - <대중문화산업발전법> :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 예술활동증명의 예술분야를 참고하여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2311번 건축가, 2911번 작가, 2932번 배우 및 모델, 2941번 화가 및 조각가, 2942번 사진기자 및 사진가, 2943번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2944번 국악 및 전통 예능인, 2945번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 2946번 가수 및 성악가, 2947번 무용가 및 안무가 등에 해당하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표 1-1]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11	건축가
				29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811	작가
				29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931	감독 및 기술 감독
		2932	배우 및 모델				
		29	문화·예술·스포츠·기타 전문가 및 관련직	294	시각 및 공연 예술가	2941	화가 및 조각가
						2942	사진기자 및 사진가
						29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2944	국악 및 전통 예능인
						2945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2946	가수 및 성악가
						2947	무용가 및 안무가
		295	디자이너	2951	제품 디자이너		
				2952	패션 디자이너		
				2953	실내장식 디자이너		
				2954	시각 디자이너		
29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2981	공연 및 시각예술 기획자				
		2982	영화 및 음반 기획자				

2) 청소년 문화예술인 유형 분류

-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으로 구분하여 살펴 봄
- 청소년 문화예술인 유형 중, 본 조사에서 실행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여 조사의 실행력을 제고함
 - (청소년 문화예술인) 현재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이나 작품활동 중인 작가 등이 해당함
 - (청소년 예비 문화예술인_연습생) 현재 기획사 등에 연습생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있어 문화예술계 진입을 앞둔 청소년으로, 대중예술분야에만 해당함
 - (청소년 예비 문화예술인_정규교육생) 현재 예술분야(대중예술/순수예술)에 특화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1학년)에 재학 중이며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 예비 문화예술인_비정규교육생) 현재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원에 다니거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며 문화예술계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 예비 문화예술인_중도포기자) 이전에 예술분야(대중예술/순수예술) 관련 교육·훈련을 받았지만, 현재는 중단하여 예술분야 진로를 중도 포기 및 진로 전환한 청소년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표 1-2] 청소년 문화예술인 유형 분류

구분	분야		
	대중예술	순수예술	
청소년 문화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 배우 	-	
청소년 예비 문화예술인	연습생	-	
	정규교육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예술특화 중·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예술특성화 일반고등학교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수예술 특화 중·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예술특성화 일반고등학교 재학생
	비정규교육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아카데미 교육생 시립서울청소년센터 교육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아카데미 교육생 시립서울청소년센터 교육생
	중도포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포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포기자

3) 조사 범위

- 이번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
- 2005년생~2010년생 (만 14세~만 19세)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에 있는 학교·학원을 다님
- 현재 문화예술 관련 전공을 하고 있거나 예술가가 되기 위한 준비(학원, 개인 레슨 등의 사교육, 동아리 활동 등)을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

3. 전문가 의견 수렴

1) 목적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범위 및 유형 정의, 현황조사의 방향성 및 인터뷰 내용 점검을 통한 연구의 타당성 확보

2) 일정

- 일시 : 2024.04.23. (화) 10:00
- 장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 진행 : 1회, 2시간 내외로 진행함

3) 대상

- 청소년, 법률, 문화예술계, 심리상담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함

[표 1-3] 전문가 의견수렴 참석자 명단

연번	구분	성명	주요 경력
1	청소년 전문가	권일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現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2	법률 전문가	김두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現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한계 지적 및 개선방향 제안
3	대중문화예술 연구자	이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강사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연구
4	대중문화인 상담가	조한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마음심리상담연구소 대표 • 아이돌, 연습생 심리상담 진행

4) 주요 내용

- 청소년 문화예술인 정의 및 범위 설정
-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관련 이슈 점검
- 현황조사의 방향성 검토
- 인터뷰 내용 검토

5)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 청소년 문화예술인 정의 및 범위 설정

- 실태조사 대상의 취사선택 필요 : 장르별 ·분야별 상황이 상이
- 중도 포기자, 초·중학생 포함
- 대학생, 현업 아이돌, 연습생 제외

■ 연구 방향성 검토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진로 선택권을 박탈당한 사례 중심의 조사 진행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진로 경로 분석 중요
-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 관련 조사
- 분야별, 대상별 조사 진행

4. 설문조사

1) 목적

-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함

2)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의 표본 구성,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및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4]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만 14세~만 19세)
표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예술인 300명 • 학교급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 과정유형 : 정규과정(예중, 예고, 예술특화 일반고, 대학교), 비정규과정(일반고) • 전공분야 : 대중예술, 순수예술 • 표집방법: 비확률표집(할당표집+눈덩이 표집)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자기기입식) • 서울시문화재단 보유자료, 유관기관 협조, 전문가, 예술단체 및 조사 응답자 추천을 통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한 자료 수집 병행 • 공문 발송, 전화/이메일, SNS(인스타그램, YOUTUBE 등)를 통한 협조 • 설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와 설문 응답자 소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 8월 (약 2개월)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처우 및 현황: 학습권·인격권·자유권·수면권·휴식권 등의 처우, 교육 여건, 진로, 신체적 부상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피해 및 현황: 폭언·폭력, 성희롱·성폭력, 체중감량·성형 강요,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문화예술 중도포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진로상담과 직업교육 현황

3) 설문 문항 구성 참고 문헌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특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본 조사 문항 구성에 참고함

[표 1-5] 일반 청소년 조사 비교

설문 문항	비교조사명
수면권/휴식권	•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습권	•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교육부/질병관리청)
진로선택권	•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교육부/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유선택권	•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격권	•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FGI (Focus Group Interview)

1) 목적

-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현황 및 이슈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정책 제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함

2) FGI 개요

- FGI 참여자 모집방법 및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음

[표 1-6] FGI 개요

구분		내용
모집 방법	청소년 문화예술인 당사자	• 문화예술 관계자(강사, 청소년상담사,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 • SNS를 통한 섭외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계자	•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인터뷰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구분	내용
진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구조화 면접법 FGI 대상자와의 협의 후, 방문/화상 인터뷰를 통해 개별 또는 그룹 인터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터뷰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1~2시간 실시

3) FGI 참여자

- 인터뷰 대상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당사자와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학부모, 실기강사 등으로 구성함
- 대중예술과 순수예술로 그룹 유형을 나누되, 장르별로 고르게 구성함

[표 1-7] FGI 참여자

구분	대중예술	순수예술	
청소년 문화예술인 당사자 (10명)	현업종사자 (1명)	뮤지컬 아역배우	-
	연습생 (1명)	아이돌지망생	-
	정규교육생 (4명)	한림예고 재학생 (기타/보컬)	전통예중 재학생 서울미고 재학생
	비정규교육생 (2명)	대학교 휴학생(연극)	대학교 편입준비생(문학)
	중도포기자 (2명)	한림예고 휴학생	문화재단 재직자(미술)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계자 (6명)	소속사 관계자 (1명)	前아이돌소속사 비주얼디렉팅팀	-
	실기강사 (3명)	실용무용과 교수 보컬트레이너	한국무용 전공
	학부모 (2명)	아이돌지망생 학부모	전통예중 재학생 학부모

4) FGI 주제 및 내용

- FGI는 예술분야와 그룹 및 대상에 따라 공통과 개별 질문으로 구성함
- FGI의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 및 연구 등을 바탕으로 구성함
 - 대중문화예술산업법(문화체육관광부, 2014.7.29. 시행)
 -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제작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0.12.18.)
 - 예술인권리보장법(2022.9.25. 시행)

-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7.22.)
- 아동 청소년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12.15.)
- FGI는 세부 주제를 기본으로 진행하되, 각 영역별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전반적 활동 환경 및 이슈 파악을 주목적으로 진행함
- 청소년 대상 FGI 진행 시,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 후 진행함

[표 1-8] FGI 주제

대상	주제
공통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인 권익에 대한 인식조사
	• 관련 정책,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청소년 문화예술인 당사자	• 청소년 예비 문화예술인의 관점에서 청소년기 검토
	• 청소년 현업 문화예술인의 관점에서 업계에 대한 인식 검토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계자	•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와 관련 인식 검토
	• 지도자의 관점에서 청소년기 검토
	• 학부모의 관점에서 청소년기, 진로에 대한 인식 검토

[표 1-9] FGI 세부 내용_청소년 문화예술인 당사자

대상	구분	내용	
공통	인권	건강권 (신체적/정신적)	• 현재 선택한 진로를 향해 준비하는 것이 행복한가? •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수면권/휴식권	•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비교할 때 특히 수면/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 수면/휴식시간 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유선택권	• 진로 및 전공관련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편인가?
		인격권	• 다이어트나 성형에 대한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학습권	• 학습 중단이나 수업결석을 강요받은 적이 있는가? • 학교 학습은 얼마나 중요하다고/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진로선택권	진로탐색 및 설계	• 전공을 언제 했는가? • 전공선택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현재 진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진로 인식 및 이해	•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누구에게/어디서 얻는가? •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하여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희망하는 직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진로준비	• 현재 진로준비과정이나 내용이 만족스러운가?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대상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준비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진로준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
		진로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선택한 진로 외 다른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가능하다면 진로를 전환하고 싶은가? 진로 전환이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로상담	상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가? 누구와/어디서 진로상담을 했는가? 상담에 만족했는가?
		상담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부분의 상담이 필요한가?
중도포기자	진로선택권	진입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전환 전에 어떤 단계로 전공을 준비했는가?
		진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전환 전 준비를 얼마나 오래 했는가? 진로 준비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진로 중도 포기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를 중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로 전환에 대해 결심은 언제 했는가? 진로 중도 포기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표 1-10] FGI 세부 내용_청소년 문화예술인 관계자

대상	구분		내용
공통	법/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은?
소속사 관계자	법/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문화예술인과의 계약조건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권익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분야를 전공하거나 진출하려는 학생들에 비해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하거나 문화예술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하거나 문화예술분야로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기본적 권익에 대한 생각은? 청소년문화예술인이 보호받아야 할 권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문화예술인(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학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문화예술인에게 학교 중단이나 수업결석을 강요한 적이 있는가?
실기강사	인권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진로	진로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과 진로와 관련한 대화를 얼마나 자주 나누는가?
		진로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전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진로전환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대상	구분		내용
학부모			생각하는가?
	인권	정신적 건강권	• 자녀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진로	진로선택	• 자녀와 진로와 관련하여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인가? • 자녀의 선택을 지지해주는가? •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진로정보	• 자녀의 희망진로부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 자녀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진로전환	• 자녀의 진로 전환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 진로전환이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타	• 자녀의 문화예술분야 진출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II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연구

제1절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관련 법령

제2절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련 연구

제1절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관련 법령

1.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관련 법령 및 지침

- 현업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이 거의 대부분이며, 현업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 등을 받으며 준비 중인 예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까지 포함한 법령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일함
 -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과 관련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등의 법령이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은 현재 기획사에 소속되어 대중예술분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정의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소년 문화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일하게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현업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나 학원을 다니며 현업 진출을 준비하는 준비생(학생)과 중도포기자까지 권익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침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은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가이드」는 연예기획사가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필요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성됨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표 II-1]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관련 법령

법령	주요 내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에서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정의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포함됨 -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가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의 행위 금지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 증진: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수익분배 거부·지연 제한 행위,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불이익 강요 행위 금지 -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예술인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의 피해와 관련하여 예술인보호관의 조사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중예술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 - 과도한 노출 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강요 금지 - 15세 미만 청소년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 1주일에 35시간 초과 금지. 22:00~06:00의 용역 제공 금지.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당사자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 제공 가능 - 15세 이상 청소년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 1주일에 40시간 초과 금지.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22:00~06:00 용역 제공 금지. 당사자,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 가능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22.05 발의) :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됨 -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청소년인권보호관 신설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규정: 12세 미만 1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 30시간 이하, 15세 이상 35시간 이하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정의: 제2조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이란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일컫음. 준비생과 중도포기자도 포함함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체중 감량·성형 강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 방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함. 특히 조기대응을 위한 심리검사, 진로상담 등 지원함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2.0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 및 수면권,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함



[표 II-2]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관련 지침

지침	주요 내용
<p>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문화체육관광부, 19.09.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면권·휴식권 등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의 제한이 있음. 15세 미만은 일주일에 35시간을, 15세 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함. 또한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음. 다만,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 유일인 경우,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받을 수 있음 - 기획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청소년 관련 금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법정대리인은 계약의 내용, 관련일정 및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음¹⁾
<p>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에 출연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됨. 기획, 섭외, 촬영, 후반 작업 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정 및 사전, 사후에 걸친 방송 제작 전단계에 대한 지침을 세세하게 제시함 - 출연 및 캐스팅부터 계약, 보수지급, 제작·촬영시간, 학습권·건강권·휴식권 등의 인권 보호, 성관련 보호, 안전과 사생활 보호까지 단계별, 분야별 권익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시함 - 24.2.14 개정되어 3.14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아동, 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 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 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있음²⁾
<p>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4.03.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 - 적용대상 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 - 특히,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 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청소년 용역제공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p>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가이드 (한국콘텐츠진흥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예기획사가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고, 필요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성됨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p>19.02.25.)</p>	<p>-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과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알려주고 심리적 위험요인·행동 및 대처방안과 면담 시 필요한 상담기술을 제시함. 특히 연습생 생활에서 주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방안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제시함. 더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습생 심리상담지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함</p>
<p>대중문화예술인(가수분야) 지망생을 위한 오디션 가이드라인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매지니먼트연합, 22.03.06.)</p>	<p>- 가수분야 지망생이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제시함. 특히 오디션 참여 시 보호자와의 동행, 보호자와 계약 내용 검토, 문제 발생시 대처법 등 청소년일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제시함</p>
<p>온라인 콘텐츠 속 아동인권보호 체크리스트 (아동권리보장원, 23.01.13.)</p>	<p>- 디지털화로 인한 아동 출연 대상의 개인방송 및 콘텐츠의 증가, 뉴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활동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권리침해 이슈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용 중인 지침을 바탕으로 온라인 속 아동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문항을 개발함</p> <p>-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방송통신위원회, 20.06.)을 바탕으로 아동이 출연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준비, 제작, 유통 전 과정에서 아동 출연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체크리스트와 근거기준을 알아볼 수 있는 활용설명서로 구성됨</p>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99&ccfNo=2&cciNo=1&cnpcIsNo=2&menuType=cnpcIs&search_put=)

2)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59697>

제2절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련 조사 및 연구

1.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 대중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몇 차례의 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나, 조사 대상의 수가 매우 적거나, 몇몇 피해 사례 제시에 그침
 -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경우 연기자 또는 연습생 활동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권익 피해 사례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그침
 -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총 1,1796명의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비율은 매우 적음

[표 II-3] 청소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및 연구

조사/연구	주요 내용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1.30.)	- 설문조사: 연기자 또는 연습생이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2개월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96명이 참여함 - 심층인터뷰: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으로 총 8명이 참여함 - 주요결과: 아동·청소년 연기자 대상 심리 상담센터 설치, 아이돌 연습생의 특수한 유입 경로를 고려한 인권 보호 방안 마련, 현장 종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매년 실시, 샤프롱 제도의 현실화 방안 마련 등 / 연기자원·에이전시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필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재논의 필요, 방송 제작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안) 개정 필요, 정부 관련 부처 간 협업 및 관련 정책/법안 개정 필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22.12.02)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유사한 권익별로 구분하여 각 문제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함. 특히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자유권, 안전보장, 재산권, 인격권 및 사생활 보장, SNS·뉴미디어의 성장 및 메타버스 시대의 문제점 등을 세분화하여 피해 사례를 제시함. 이에 기초하여 가이드라인의 가목차(안)을 구성하고, 각 목차별로 유관 기관들이 제정한 법령, 지침 등을 정리하려 제시함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23.11.30.)	- 설문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대상으로 3개월간 면접조사, 전화조사, Fax/E-mail. 조사를 병행함. 총 4,066곳 1,796명이 참여함 - 심층인터뷰: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정성조사로 총 34명이 참여함 - 주요결과: 시장규모의 지속적 성장과 심각한 양극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비율 감소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p>로 종사자 구조 변화, 표준계약서의 높은 활용 및 인식, 사전접촉(탬퍼링) 근절을 위한 제제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련 사항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의 현황: 청소년 연예인 유무, 외국 국적 연예인 유무, 별도 계약 현황, 별도 계약 조항 및 생활지침, 수익금 지급 방식, 평균 계약 기간, 평균 연예 활동 시간, 야간 활동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방식, 용역제공시간 재학 현황, 활동 시기 등교 횟수, 등교 여부 및 등학교 시간 확인 여부, 등학교시 매니저 동행 여부 등을 확인함 - 심층 인터뷰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활동 시간 관련 내용을 산업 관련 이슈로 다룸
<p>「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19.02.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계약 관련 현장조사와 문헌연구 방식으로 진행함. 계약 현황, 국내외 법제도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연습생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분석,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 및 연습생 계약서 개발 경과 및 해석 등을 내용으로 연구함 - 결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의 제정 고시 우선 추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특화된 간편하고 표준적인 정신건강 진단 및 관리 시스템 개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교습비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 연습생 대상 별도의 표준계약서 제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및 청소년 용역제공시간 준수에 대한 재재조치 도입,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 입법화

2.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 전국 단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권, 건강, 진로 교육 실태 및 현황조사에서도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하거나 준비하는 학생들을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음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진로 준비 과정은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 실태, 건강행태, 진로 교육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함

[표 II-4] 청소년 대상 조사

조사/연구	주요 내용
<p>「2023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3개월간 조사원이 방문하여 자기기입식 조사 및 우편조사를 진행함 - 총 8,796명 참여함 - 주요 결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학교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예방 및 회복적 지원, 기후변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개발, 아동·청소년 문화·스포츠 바우처(청소년문화패스) 도입,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일할 권리 보장
<p>「2023 청소년건강행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 1대의 모바일기기를 배정하여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를 진행함 - 총 52,880명이 참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결과: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신체생활·정신건강 개선, 청소년의 식생활 지표 개선 부진, 전반적인 건강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나아졌으나 시도간/성별/학교급별 차이가 있어 지속적 현황 파악 필요
<p>「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초중고의 진로전담교사, 학교 관리자, 담임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7주간 조사지 응답 방식으로 진행함 - 총 38,302명이 참여함 - 주요 결과: 학교급별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 온라인 기반 진로교육 정보의 확산 방안 마련, 다양한 학생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진로교육 정책 추진 필요,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체험 실시 방안 마련,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활동 확대 방안 마련

III

설문조사

제1절 응답자 특성

제2절 조사 결과



제1절 기본 특성

1. 응답자 특성

- 응답자들은 순수예술고(38.2%), 일반고(21.3%), 대중예술고(11.4%), 일반중(10.2%), 순수예술특화과정 일반고(9.0%)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규/비정규교육생)응답자는 예술전문 중·고등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받고 있는 정규교육생은 63.6%, 그 외 학교에 다니면서 학원이나 개인 레슨 등 개인적으로 예술교육을 받고 있는 비정규교육생은 36.4%로 구성됨
- (대중/순수예술) 응답자들가운데 대중예술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51.9%, 순수예술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47.2%로 나타남
- (전공 분야) 분야별로는 미술과 음악이 각각 32.6%, 3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연기(15.7%), 보컬(6.1%), 무용(6.1%), 댄스(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1] 청소년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

구분		%	명
전체		100.0	343
교급별	대학생	9.3	32
	고등학생	78.7	270
	중학생	12.0	41
교육과정별	정규교육생	63.6	218
	비정규교육생	36.4	125
성별	남성	20.7	71
	여성	79.3	272
분야별	대중예술	51.9	178
	순수예술	47.2	162
	기타	0.9	3
	미술	32.7	112
전공분야별	음악	30.0	103
	연기	15.7	51
	보컬	9.6	33
	무용	6.1	21
	댄스	4.4	15
	기타	1.5	5

구분		%	명
거주지역	서울소재 학교/학원 & 서울거주	86.6	297
	서울소재 학교/학원 & 서울 외 거주	12.2	42
	서울외학교/학원 & 서울거주	1.2	4
학교 특성	예술중	1.7	6
	일반중	10.2	35
	예술고	38.2	131
	예술특성화과정 일반고	9.0	31
	일반고	21.3	73
	예술 특성고	11.4	39
	특성화고	2.0	7
	대학교 (문화예술전공)	3.2	11
	홈스쿨링	1.2	4
	검정고시	0.3	1
	기타	1.5	5

2. 일반 청소년 비교 자료

- 청소년 문화예술인 조사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소년 문화예술인 조사 결과와 일반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를 비교함
- 단, 조사의 목적, 조사 시기, 표집 방법, 응답자 구성 비율 등이 달라 절대적인 수치 비교를 지양하며, 청소년문화예술인 현황 이해의 차원에서 참고용으로 삼고자 함

[표 III-2] 일반 청소년 비교 자료 출처

조사 결과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23 초중등진로교육 현황조사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1) 수면권/휴식권	●		
2) 학습권	●	●	
3)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		●
4) 진로선택권		●	
5) 자유선택권	●		
6) 인격권	●		

[표 III-3] 일반 청소년 비교 자료 개요

조사 명	조사 개요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 시기 : 2023년 5월~7월 • 조사 대상 : 전국 초4~고3 재학생 8,796명
2023 초중등진로교육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시행처 : 교육부, 질병관리청 • 조사 시기 : 2023년 8월~10월 • 조사 대상 : 전국 중1~고3 재학생 52,880명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시행처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조사 시기 : 2023년 6월~7월 • 조사 대상 : 전국 초중등 400개교 재학생

제2절 조사 결과

1. 수면권/휴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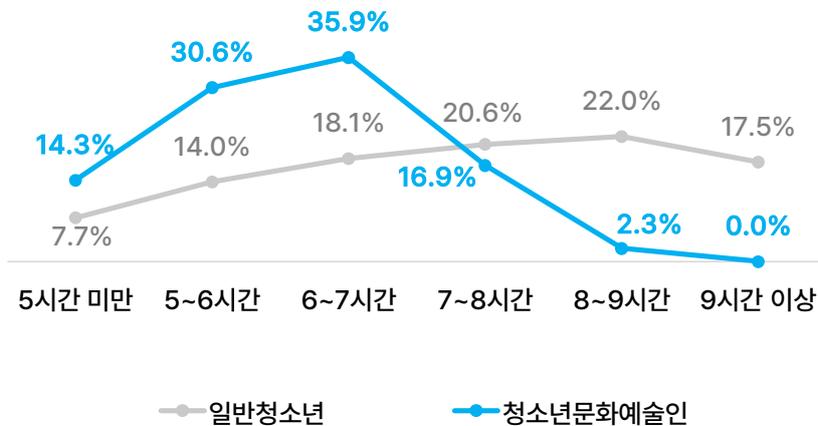
1) 수면권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수면 시간 부족은 '전공과 관련한 개인 연습'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 학업과 실기 병행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임

○ (수면 시간) 청소년 문화예술인 대부분의 수면 시간은 7시간 미만으로, 일반 청소년보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비정규교육생과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의 경우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비율이 각각 53.6%, 49.5%로, 정규교육생과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 청소년 문화예술인 수면 시간



[표 III-4] 청소년문화예술인 수면 시간

(단위: %)

구분	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8시간 미만	8~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전체 (n=339)	14.3	30.6	35.9	16.9	2.3	0.0
정규교육생 (n=217)	11.9	28.0	40.8	16.5	2.8	0.0
비정규교육생 (n=122)	18.4	35.2	27.2	17.6	1.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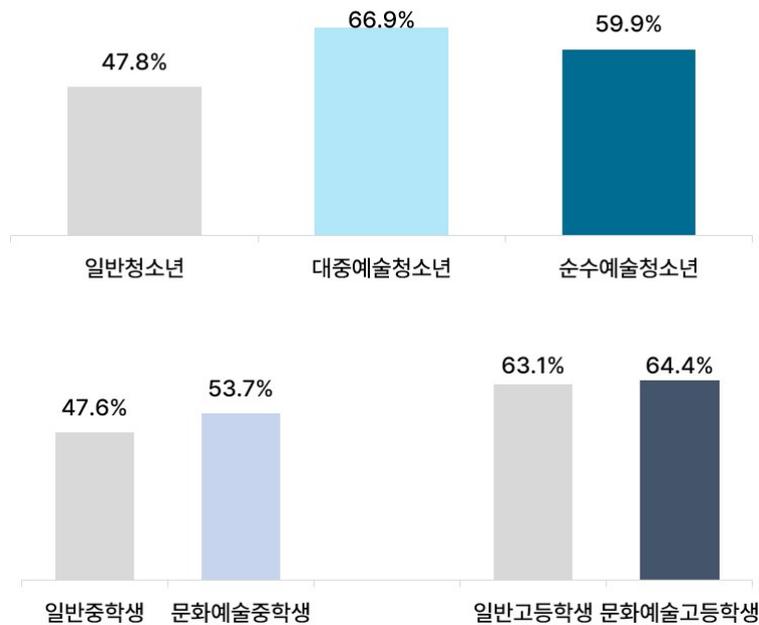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구분	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8시간 미만	8~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대중예술 (n=176)	16.9	32.6	29.8	18.0	2.8	0.0
순수예술 (n=160)	11.1	27.8	43.2	16.0	1.9	0.0

○ (주관적 수면 부족 인식) 일반 청소년과 청소년 문화예술인들 모두 수면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일반청소년에 비해 특히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교급별 비교를 해 보면, 고등학생은 문화예술 전공 고등학생과 일반 고등학생의 차이가 없으나, 중학생의 경우 일반 중학생의 47.6%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반면, 문화예술 중학생의 53.7%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하여, 약 7.1%p 높음

[그림 Ⅲ-2] 청소년 문화예술인 수면 시간



[표 Ⅲ-5] 청소년문화예술인 수면 시간 부족 정도

(단위: %)

구분	부족함	보통	충분함
전체 (n=343)	63.3	17.8	19.0
정규교육생 (n=218)	64.7	18.8	16.5
비정규교육생	60.8	16.0	23.2

구분	부족함	보통	충분함
(n=125) 대중예술	66.9	19.7	13.5
(n=178) 순수예술	59.9	14.8	25.3

○ (수면 부족 이유)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전공 관련 개인 연습'을 수면 부족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교육과정이나 분야별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비정규교육생의 경우 전공 관련 개인 연습과 더불어 학원, 과외를 수면 부족의 주요 이유로 꼽고 있어, 학업과 실기를 병행하기 위한 시간이 정규교육생보다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III-6] 청소년문화예술인 수면 부족 이유

(단위: %)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전공 관련 개인 연습	가정 학습	게임	채팅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기타
전체 (n=339)	2.3	19.8	33.2	9.2	6.0	3.2	14.7	8.3	3.2
정규교육생 (n=217)	2.8	17.0	36.2	7.8	5.7	2.8	17.0	8.5	2.1
비정규교육생 (n=122)	1.3	25.0	27.6	11.8	6.6	3.9	10.5	7.9	5.3
대중예술 (n=176)	2.5	16.8	31.1	12.6	5.9	2.5	15.1	10.9	2.5
순수예술 (n=160)	2.1	23.7	35.1	5.2	6.2	4.1	14.4	5.2	4.1

2) 휴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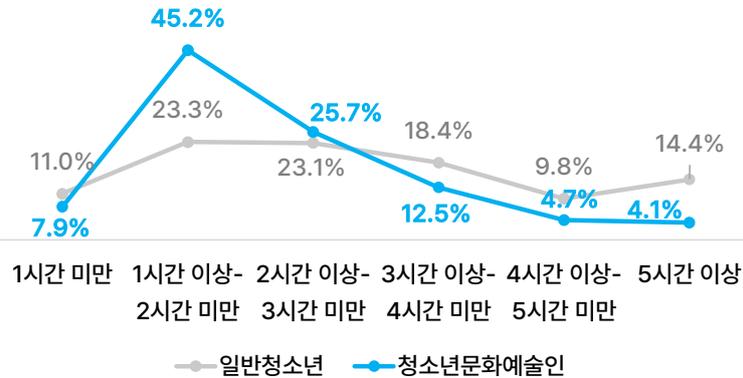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휴식/여가 시간 부족은 '전공과 관련한 개인 연습'이 가장 주요 원인이나, 비정규 교육생은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 학업과 실기 병행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임

○ (휴식/여가 시간) 청소년 문화예술인 대부분(78.8%)의 여가 시간은 3시간 미만으로, 일반 청소년보다 여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정규교육생과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의 경우 3시간 미만 여가 시간 비율이 각각 83.4%, 84%로, 비정규교육생,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그림 Ⅲ-3] 청소년 문화예술인 여가 시간



[표 Ⅲ-7] 청소년 문화예술인 여가 시간

(단위: %)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9시간 이상
전체 (n=339)	7.9	45.2	25.7	12.5	4.7	5.1
정규교육생 (n=217)	7.3	50.0	26.1	10.1	3.2	3.2
비정규교육생 (n=122)	8.8	36.8	24.8	16.8	7.2	5.6
대중예술 (n=176)	9.6	38.8	25.8	12.4	7.3	6.2
순수예술 (n=160)	6.2	51.9	25.9	12.3	1.9	1.9

○ (휴식/여가 시간 부족 이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휴식/여가 시간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전공 관련 연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교육과정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비정규교육생은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휴식/여가 시간 부족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아 정규교육생과 차이를 보임

[표 Ⅲ-8] 청소년문화예술인 휴식/여가 시간 부족 이유

(단위: %)

구분	학교 정규 교육 시간	학원, 과외 등 사교육	전공 관련 연습	가정학습	기타
전체 (n=339)	15.2	33.3	43.0	6.7	1.8
정규교육생 (n=217)	11.7	33.3	48.3	5.8	0.8
비정규교육생 (n=122)	24.4	33.3	28.9	8.9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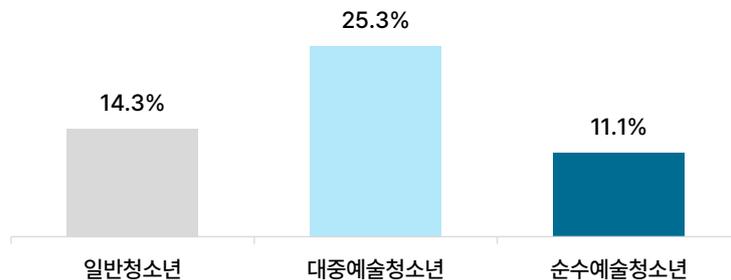
구분	학교 정규 교육 시간	학원, 과외 등 사교육	전공 관련 연습	가정학습	기타
대중예술 (n=176)	22.2	25.0	44.4	6.9	1.4
순수예술 (n=160)	8.8	39.6	42.9	6.6	2.2

2.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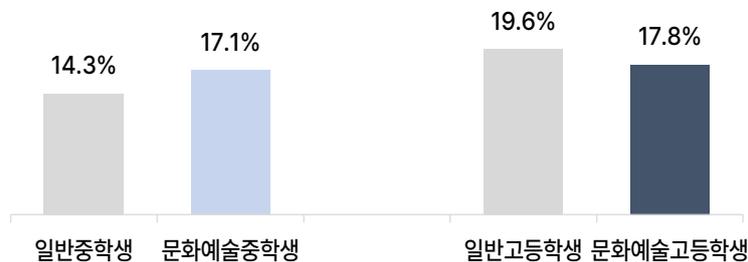
1) 신체적 건강권

- 청소년 문화예술인 가운데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과 중학생의 경우 일반청소년, 일반중학생보다 신체적 건강에 대해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음

[그림 III-4] 청소년문화예술인 신체적 건강 인식



[그림 III-5] 청소년문화예술인 신체적 건강 인식(중/고등학생)



- (신체 부상 경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 부상 경험은 많지 않으나, 순수예술 분야보다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의 부상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남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 (부상 시 대처방식)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의 경우 부상 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도 순수예술에 비해 높은 편이며, 연습에 방해될까 봐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다소 높게 나타남

[표 III-9] 청소년문화예술인 신체 부상 경험 및 대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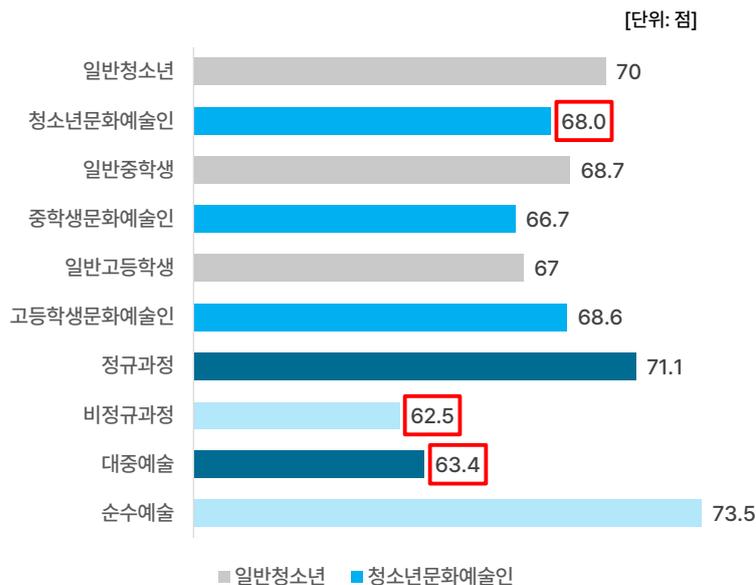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지난 1년간 부상 경험 있음	부상 시 조치 취하지 않음	미조치 이유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연습에 방해될까 봐	부모/교사의 질타가 두려워서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서
전체 (n=41)	35.3	23.1	60.7	14.3	3.6	17.9
대중예술 (n=28)	37.1	31.8	57.1	19.0	4.8	19.0
순수예술 (n=12)	32.7	13.2	71.4	-	-	14.3

2) 정신적 건강권

-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일반 청소년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끼며,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행복감)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행복감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정규교육생의 행복감(62.5점)이 정규교육생(71.1점)에 비해 낮고,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의 행복감(63.4점)이 순수예술 분야(73.5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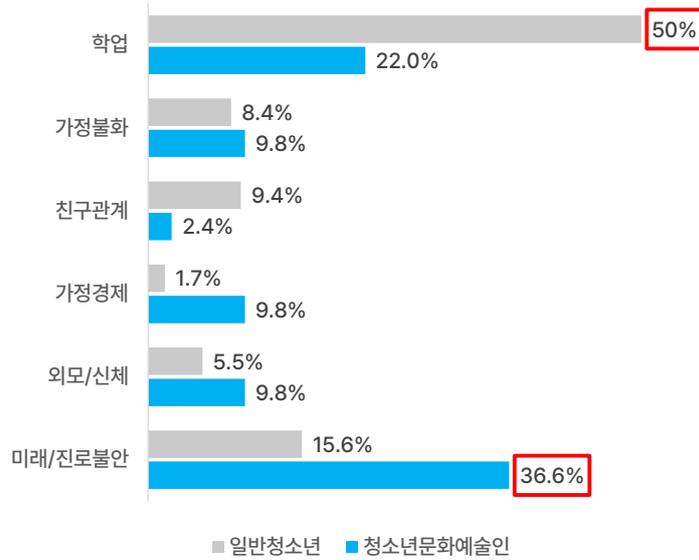
[그림 III-6] 청소년문화예술인의 행복감





- **(불행한 이유)**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일반학생들이 불행한 이유로 학업을 가장 많이 꼽은 것과 비교됨
 - 정규교육생은 비정규교육생보다 ‘학업 부담과 성적’, ‘외모/신체적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은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은 ‘외모/신체적 조건’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임

[그림 Ⅲ-7] 청소년문화예술인의 불행한 이유



[표 Ⅲ-10] 청소년문화예술인이 불행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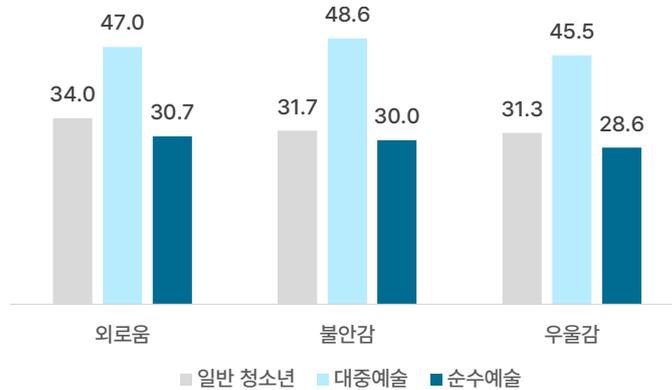
구분	학업 부담, 성적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외모/신체적 조건	미래/진로 불안
전체 (n=41)	22.0	9.8	2.4	9.8	9.8	36.6
정규교육생 (n=16)	18.8	6.3	0.0	12.5	6.3	37.5
비정규교육생 (n=25)	24.0	12.0	4.0	8.0	12.0	36.0
대중예술 (n=28)	17.9	7.1	3.6	7.1	7.1	46.4
순수예술 (n=12)	25.0	16.7	0.0	16.7	16.7	16.7

■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일반 청소년보다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을 많이 느끼며, 특히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보임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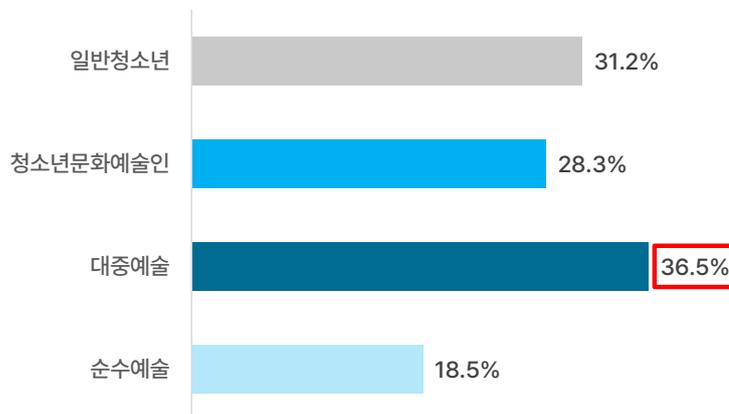
- **(외로움/불안감/우울감)**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더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8] 청소년문화예술인의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청소년 문화예술인 가운데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비율은 낮은 편이나, 분야별로는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높게 나타남

[그림 III-9] 청소년문화예술인의 자살 생각 경험



- **(스트레스 원인)** 정규교육생과 비정규교육생 간에 스트레스 원인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성과와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



[표 Ⅲ-11] 청소년문화예술인 스트레스 원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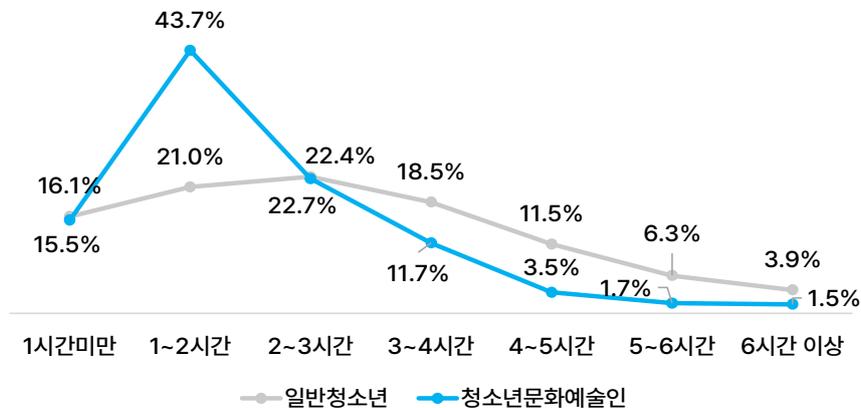
구분	부모님 과 갈등	형제자 매와 갈등	가정 형편	교사/강 사와 갈등	친구, 선후배 관계	성적, 진로 불안	학업	건강	외모	기타
전체 (n=339)	8.3	1.8	4.4	1.5	3.8	50.1	22.7	1.2	2.9	3.2
정규교육생 (n=217)	7.4	1.4	5.1	2.3	3.7	49.8	23.0	0.9	3.2	3.2
비정규교육생 (n=122)	9.8	2.5	3.3	0.0	4.1	50.8	22.1	1.6	2.5	3.3
대중예술 (n=176)	10.2	1.1	2.8	0.6	4.5	53.4	18.8	0.6	2.3	5.7
순수예술 (n=160)	6.3	2.5	5.6	2.5	3.1	46.9	26.9	1.9	3.8	0.6

3. 학습권

1) 개인 학습 시간

-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실기 연습으로 인해 개인 학습 시간이 일반 청소년보다 부족하며, 특히 정규교육생과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의 개인 학습 시간이 더 부족함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개인 학습 시간은 1~2시간 미만이 43.7%로, 실기와 학습 병행으로 인해 개인 학습 시간이 일반 청소년보다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정규교육생과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의 개인 학습 시간이 비정규교육생,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0] 청소년문화예술인의 개인 학습 시간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표 Ⅲ-12] 청소년문화예술인 개인 학습 시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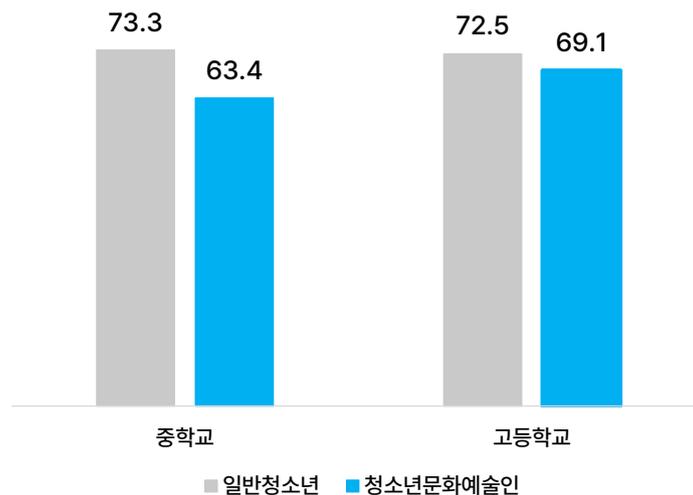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 (n=339)	15.5	43.7	22.4	11.7	3.5	1.7	1.5
정규교육생 (n=217)	12.4	49.1	24.3	9.6	2.3	1.4	0.9
비정규교육생 (n=122)	20.8	34.4	19.2	15.2	5.6	2.4	2.4
대중예술 (n=176)	17.4	37.6	24.2	11.2	3.9	2.8	2.8
순수예술 (n=160)	13.6	51.2	19.8	11.7	3.1	0.6	0.0

2) 학교생활 만족도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일반 학생에 비해 다소 낮으며, 특히 비정규교육생과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수업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의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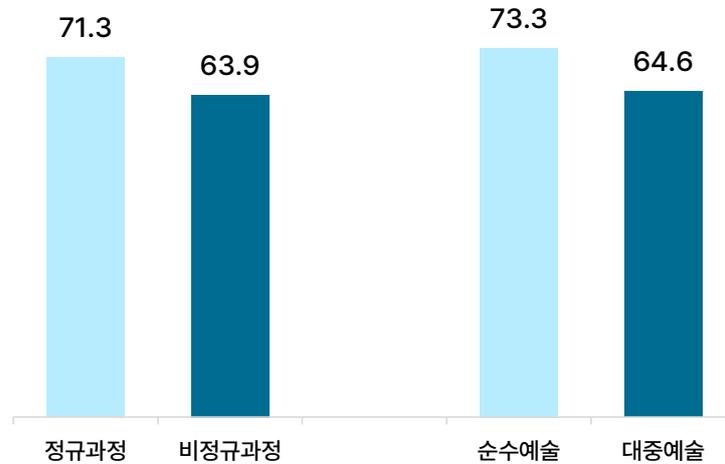
○ 비정규교육생과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은 수업 시간 재미, 학교의 즐거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항목에서 정규교육생과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만족도가 낮음

[그림 Ⅲ-11] 학교생활 만족도





[그림 Ⅲ-12] 청소년문화예술인 교육과정/분야별 학교생활 만족도



- (수업 시간 재미/학교의 즐거움) 비정규교육생은 정규교육생보다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며, 그 차이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의 만족도가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수업 중요도) 정규교육생과 비정규교육생 모두 학교 수업이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중예술 분야와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의 경우 학교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에 비해 다소 낮음

[표 Ⅲ-13] 청소년문화예술인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친구들의 존중	교사의 학생 존중	수업 시간 재미도	학교의 즐거움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학교 수업 중요도
전체 (n=339)	75.9	76.2	66.4	65.9	68.6	72.0
정규교육생 (n=217)	76.5	77.6	71.1	70.6	71.3	72.3
비정규교육생 (n=122)	74.7	73.9	58.3	57.9	63.9	71.3
대중예술 (n=176)	72.9	74.3	62.4	61.9	64.6	69.8
순수예술 (n=160)	78.7	78.2	71.2	70.5	73.3	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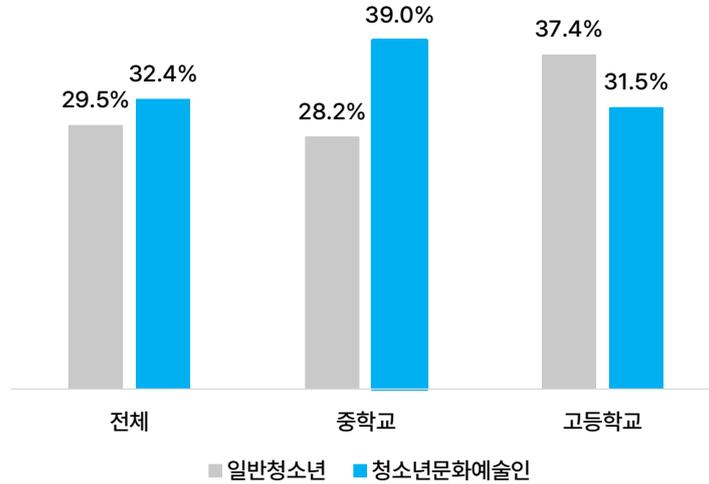
3) 학교 중도 포기 의사

-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며, 특히 비정규교육생, 대중 예술 분야, 중학생의 학교 중도 포기 의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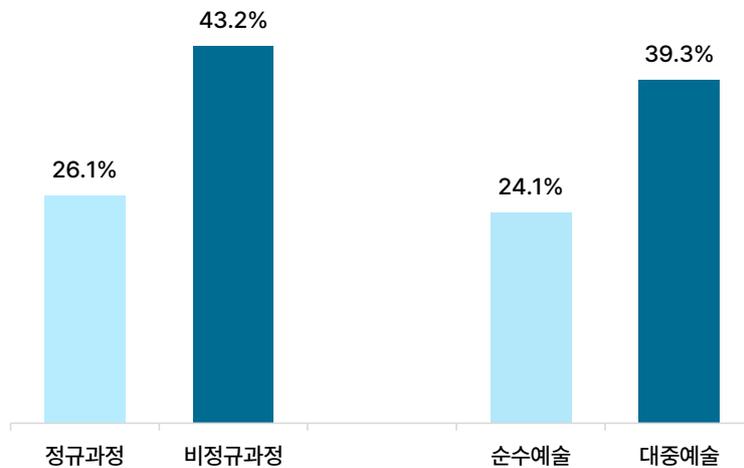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과 비정규교육생의 학교 중도 포기 의사가 순수예술 분야와 정규교육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Ⅲ-13] 학교 중도 포기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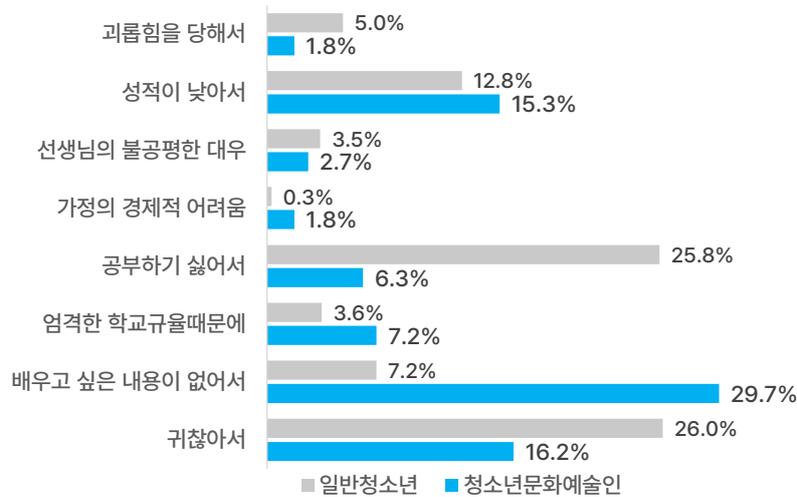


[그림 Ⅲ-14] 청소년문화예술인 학교 중도 포기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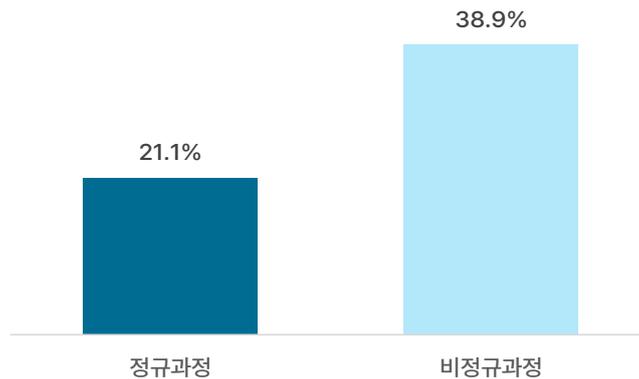


- **(학교 중도 포기 희망 이유)** 청소년문화예술인이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싶은 이유로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특히 비정규교육생의 해당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정규교육생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III-15] 청소년문화예술인 학교 중도 포기 희망 이유



[그림 III-16] 청소년문화예술인 교육과정별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이유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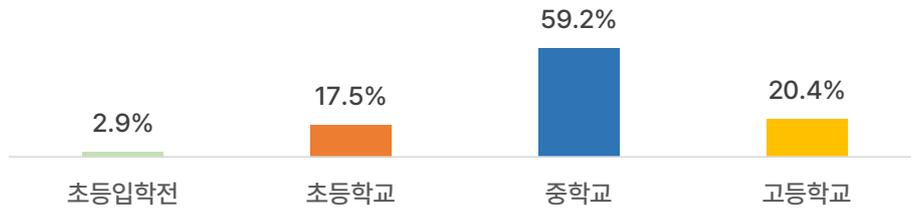
4. 진로 선택권

1) 전공선택 시기

-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자신의 전공/진로를 대체로 중학교 시기에 선택하지만, 비정규교육생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선택하는 경우도 많으며,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선택하는 비율도 높음
-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대체로 중학교 시기(59.2%)에 자신의 전공/진로에 대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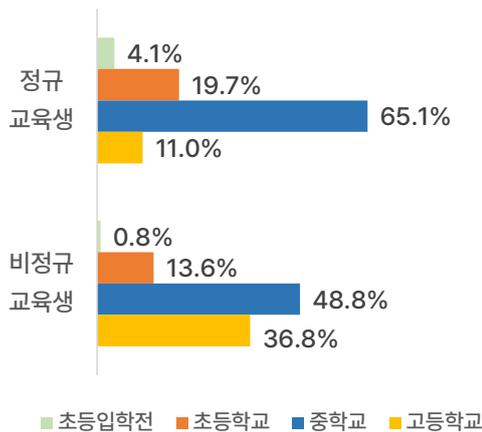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그림 Ⅲ-17] 청소년문화예술인 전공선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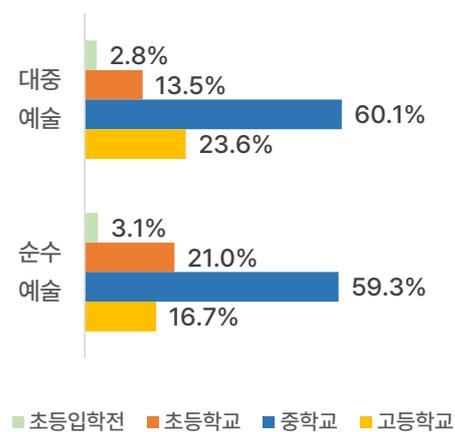


- 정규교육생이 비정규교육생보다 중학교에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정규교육생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전공을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 대중예술 분야와 순수예술 분야 모두 전공선택 시기로 중학교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높았으며,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에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대중예술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Ⅲ-18] 청소년 문화예술인 교육과정별 전공 선택 시기



[그림 Ⅲ-19] 청소년 문화예술인 분야별 전공선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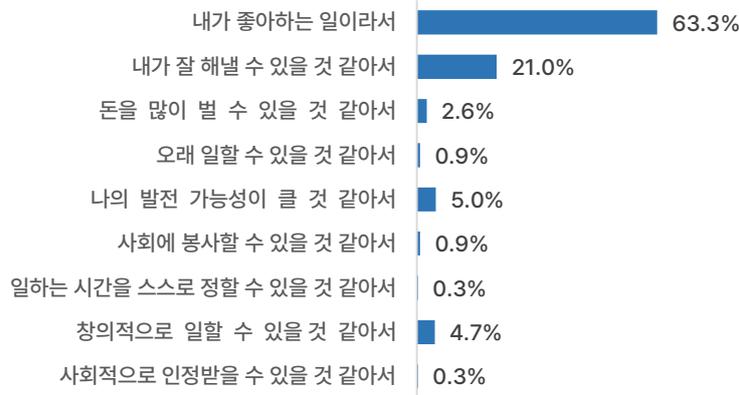


2) 직업 희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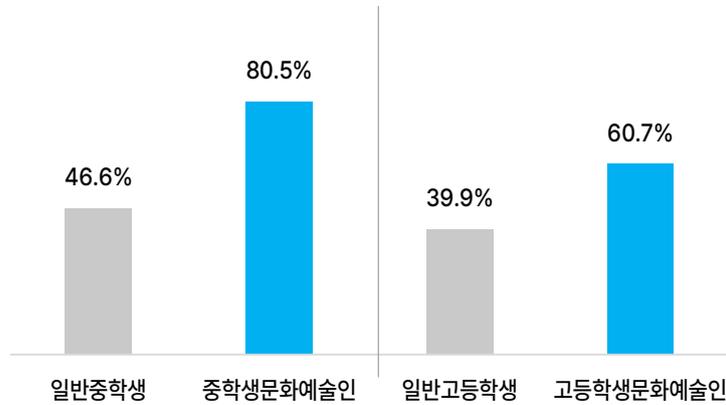
-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전공/진로를 선택하였지만, 직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낮았음
- 정규교육생의 경우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현재 직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정규교육생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교육생과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은 정규교육생과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희망하는 직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0] 청소년 문화예술인 직업 희망 이유



[그림 Ⅲ-21] 청소년 문화예술인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선택 비율



[표 Ⅲ-14] 청소년 문화예술인 직업 희망 이유

(단위: %)

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 (n=343)	63.3	21.0	2.6	0.9	5.0	0.9	0.3	4.7	0.3
정규교육생 (n=218)	58.3	24.3	3.2	1.4	6.4	0.5	0.5	4.1	0.5
비정규교육생 (n=125)	72.0	15.2	1.6	0.0	2.4	1.6	0.0	5.6	0.0
대중예술 (n=178)	66.3	15.2	2.8	0.6	6.2	0.6	0.0	6.2	0.0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내가 해낼 것 같아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수예술 (n=162)	60.5	27.2	2.5	1.2	3.1	1.2	0.6	3.1	0.6	

3) 보호자(부모)와의 희망 직업 일치도

-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은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부모와 희망하는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5] 청소년 문화예술인 부모님과의 희망 직업 일치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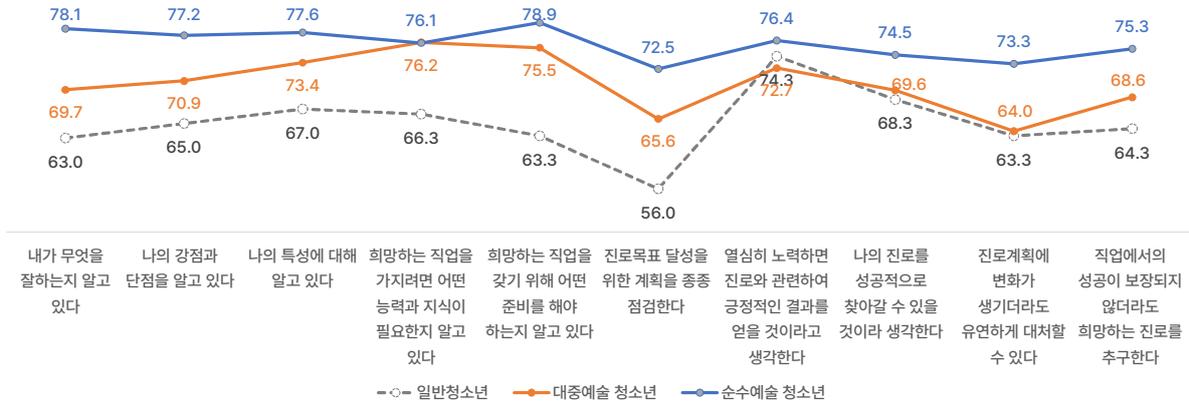
구분	일치함	일치하지 않음	모르겠음
전체 (n=343)	55.4	15.2	29.4
정규교육생 (n=218)	58.7	12.8	28.4
비정규교육생 (n=125)	49.6	19.2	31.2
대중예술 (n=178)	48.3	15.7	36.0
순수예술 (n=162)	63.0	14.8	22.2

4) 진로 관련 인식 및 태도

- 청소년문화예술인은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일반 청소년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나,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은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진로 자신감 및 진로 전환 유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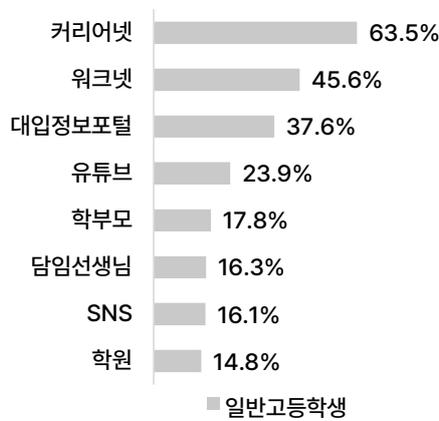
[그림 Ⅲ-22] 청소년 문화예술인 진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5) 진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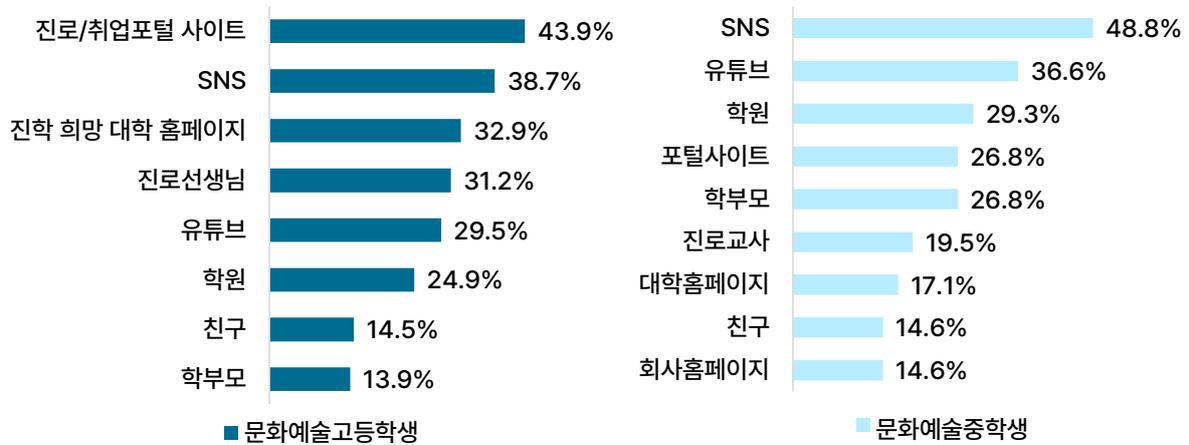
- (진로 정보 주요 획득경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SNS, 유튜브, 학원 등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예술 중학생과 비정규교육생의 경우 해당 채널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

[그림 Ⅲ-23] 일반고등학생 진로정보 획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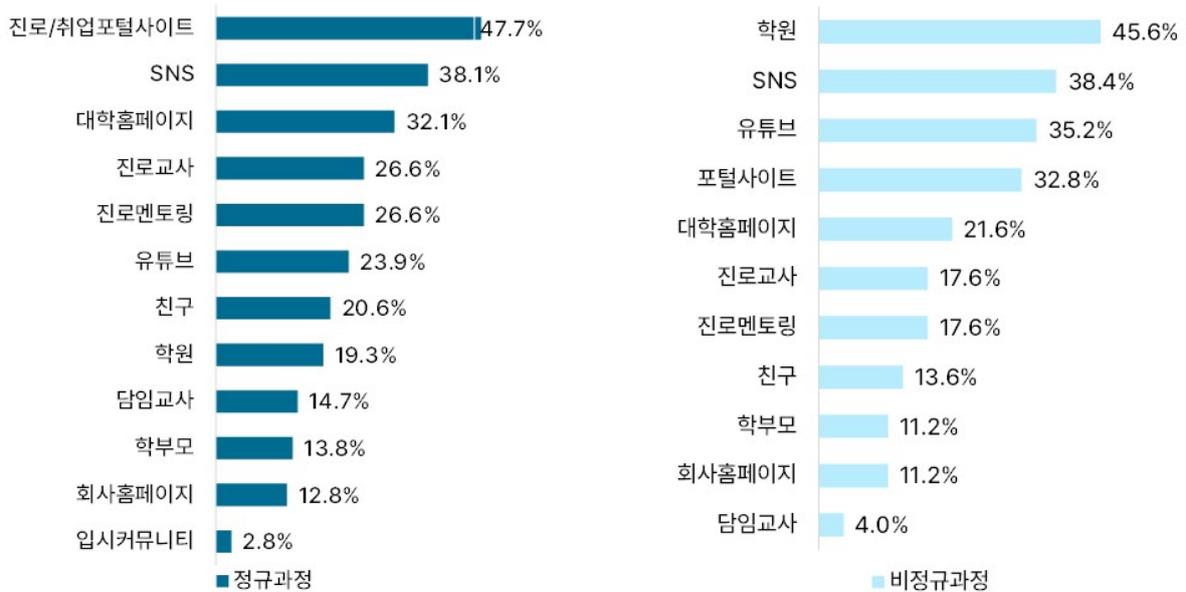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그림 Ⅲ-24]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정보 획득 경로 (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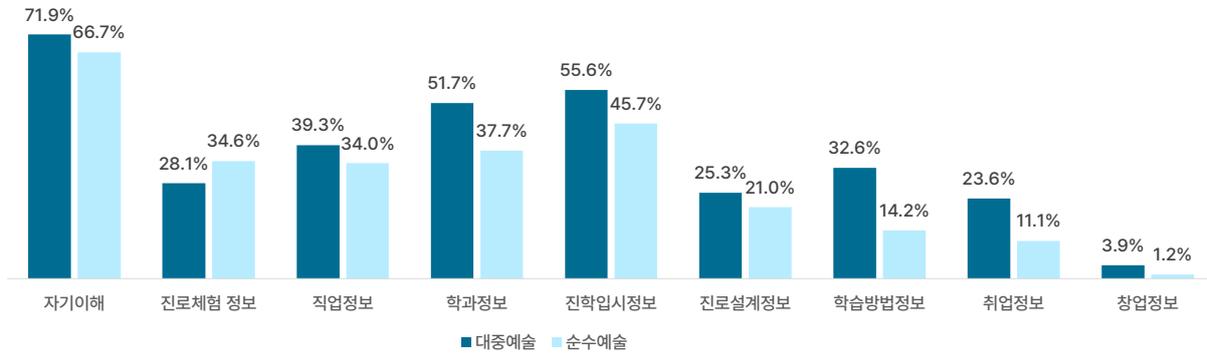
[그림 Ⅲ-25]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정보 획득 경로 (교육 과정별)



○ (필요한 진로 정보) 청소년문화예술인은 진로 설정을 위한 정보로, '자기 이해(본인의 장단점, 취향, 적성, 흥미, 가치관 등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진학·입시 정보, 학과 정보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자기 이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진학·입시 정보, 학과 정보 등 진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6]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설정에 필요한 진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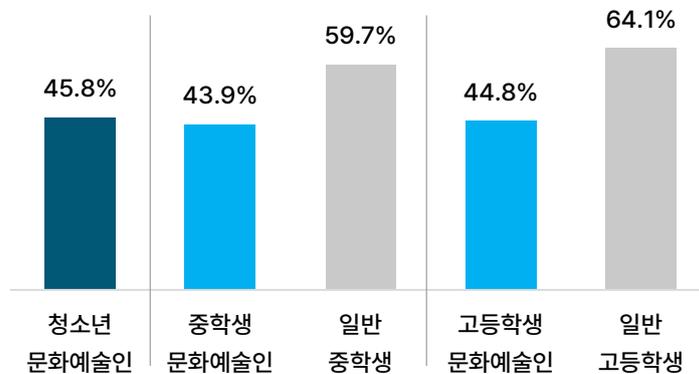


6) 진로상담

■ 문화예술 중학생, 비정규교육생,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은 진로상담에 상대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상담자의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으로 나타남

○ (진로상담 경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진로상담 경험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중·고등학생과 비교할 때도 진로상담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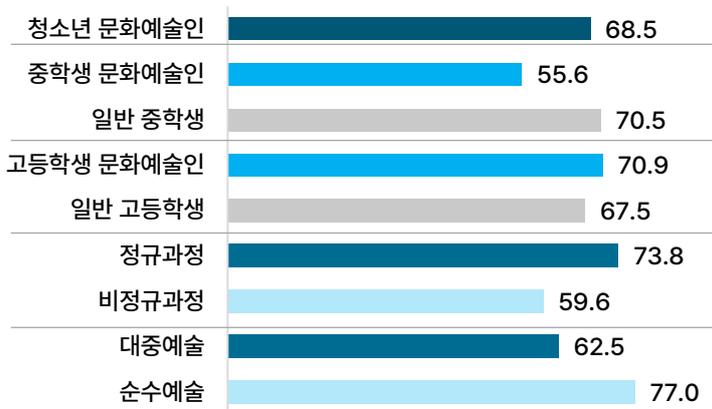
[그림 III-27]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상담 경험



○ (진로상담 만족도)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진로상담 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문화예술 중학생, 비정규교육생,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의 진로상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그림 Ⅲ-28]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상담 만족도



- (진로상담 불만족 이유)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진로상담에 만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상담자가 희망하는 진로를 잘 알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 비정규교육생,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상담자의 희망 직업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Ⅲ-16] 청소년 문화예술인 진로상담 불만족 이유

(단위: %)

구분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상담자가 희망하는 진로를 잘 알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상담이 진행돼서	기타
전체 (n=343)	6.3	50.0	31.3	12.5
중학생 (n=41)	0.0	100.0	0.0	0.0
고등학생 (n=270)	10.0	30.0	50.0	10.0
정규교육생 (n=218)	16.7	16.7	33.3	33.3
비정규교육생 (n=125)	0.0	70.0	30.0	0.0
대중예술 (n=178)	0.0	61.5	30.8	7.7
순수예술 (n=162)	33.3	0.0	33.3	33.3

7) 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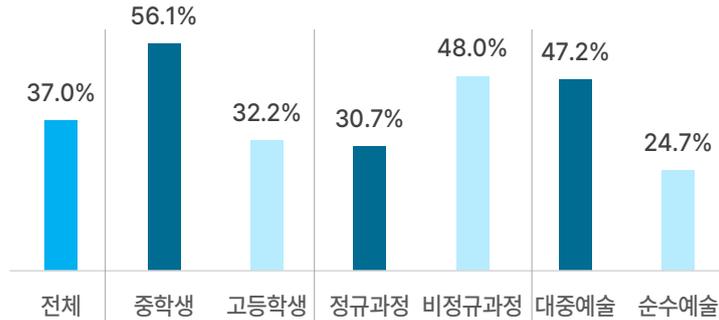
- 비정규교육생과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진로 전환을 고려한 주요 이유는 '현재 진로로 성공할 자신이 없어서'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정규교육생과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에 비해 높으며, 특히 비정규교육



생은 진로 전환에 대해 부모님과 상담하는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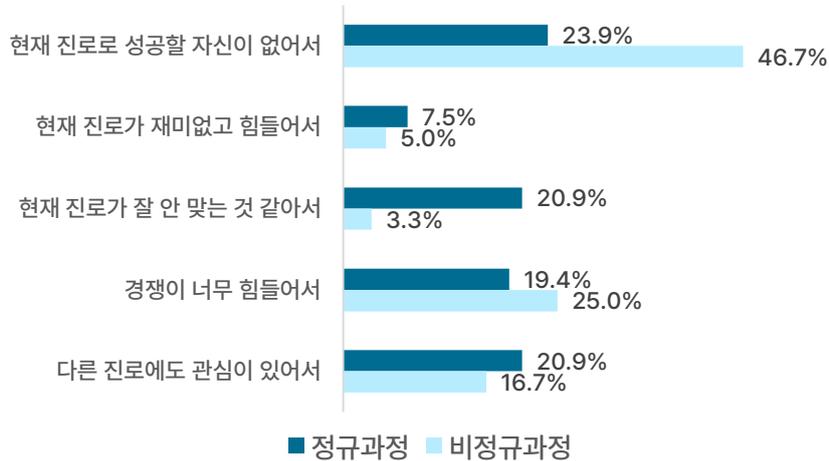
- (진로 전환 고려 경험) 전체 청소년 문화예술인 가운데 현재 선택한 진로 외에 다른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교적 낮으나, 문화예술 중학생, 비정규교육생,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진로 전환 고려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Ⅲ-29] 청소년 문화예술인 진로 전환 고려 경험



- (진로 전환 고려 이유)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진로 전환을 고려한 가장 큰 이유로 '현재 진로로 성공할 자신이 없어서'를 꼽았으며, 특히 비정규교육생의 46.7%가 이 이유를 선택하여 정규교육생보다 비정규교육생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Ⅲ-30] 청소년 문화예술인 진로 전환 고려 이유



- (진로 전환 상담 경험 및 상담 대상)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진로 전환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교육생의 경우 정규교육생보다 진로 전환 상담 경험이 다소 많았으며, 특히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진로 전환 상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진로 전환에 대해 교사/강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교육생과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이 비정규교육생과 대중예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정규교육생의 경우 교사/강사와의 상담 비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정규교육생보다 부모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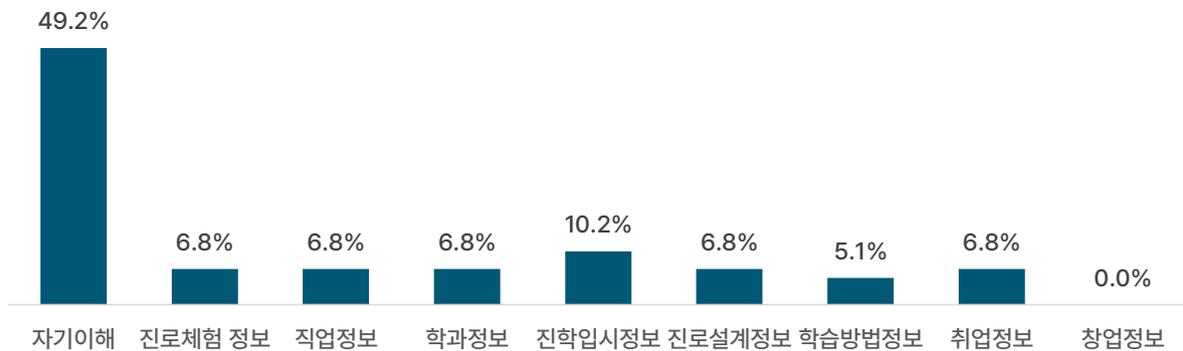
[표 III-17]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전환 상담 경험 및 진로 전환 상담 대상

(단위: %)

구분	진로 전환 상담 경험		진로 전환 상담 대상				
	있다	없다	부모님	교사/강사	진로 상담가	선배	친구
전체 (n=343)	27.1	72.9	31.3	56.3	6.3	0.0	6.3
정규교육생 (n=218)	21.9	78.1	28.6	71.4	0.0	0.0	0.0
비정규교육생 (n=125)	33.3	66.7	33.3	44.4	11.1	0.0	11.1
대중예술 (n=178)	35.1	64.9	30.8	53.8	7.7	0.0	7.7
순수예술 (n=162)	13.6	86.4	33.3	66.7	0.0	0.0	0.0

- (진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진로 전환을 고려하기 위해 자기 이해에 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진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문화예술 중학생은 자기 이해, 진학/입시, 직업 정보를, 문화예술 고등학생은 자기 이해, 진로 체험, 학과 정보 등을 꼽아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문화예술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진학/입시 정보와 직업 정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교육생은 비정규교육생보다 학과와 진학/입시 정보, 비정규교육생은 진로 설계 정보가 진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꼽음
 -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은 진로 체험 정보,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은 학과와 진학/입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III-31]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



[표 III-18]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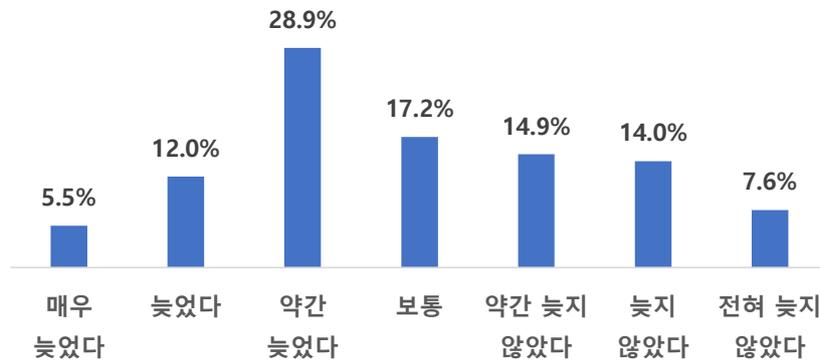
구분	자기이해	진로체험	직업	학과	진학/입시	진로설계	학습방법	취업	창업
전체 (n=343)	49.2	6.8	6.8	6.8	10.2	6.8	5.1	6.8	0.0
중학생 (n=41)	55.6	0.0	11.1	0.0	22.2	11.1	0.0	0.0	0.0
고등학생 (n=270)	47.7	9.1	6.8	9.1	4.5	6.8	6.8	6.8	0.0
정규교육생 (n=218)	50.0	6.3	6.3	12.5	12.5	0.0	6.3	6.3	0.0
비정규교육생 (n=125)	48.1	7.4	7.4	0.0	7.4	14.8	3.7	7.4	0.0
대중예술 (n=178)	54.1	10.8	5.4	2.7	8.1	5.4	5.4	5.4	0.0
순수예술 (n=162)	40.9	0.0	9.1	13.6	13.6	9.1	4.5	9.1	0.0

○ (진로 변경 시기 적절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46.4%가 현재 선택한 진로 외 다른 진로로 변경하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교육생과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이 정규교육생과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진로를 변경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그림 III-32]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변경 시기의 적절성



[표 III-19] 청소년문화예술인 진로 변경 시기 적절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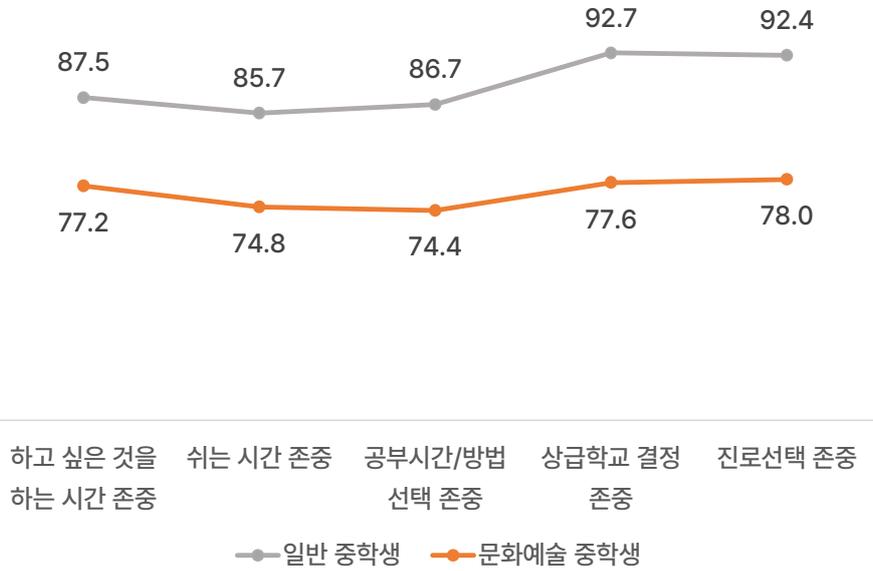
구분	늦었다	보통	늦지 않았다
전체 (n=343)	46.4	17.2	36.5
정규교육생 (n=218)	45.5	19.3	35.3
비정규교육생 (n=125)	48.0	13.6	38.4
대중예술 (n=178)	44.9	20.2	34.9
순수예술 (n=162)	47.5	14.2	38.3

5. 자유선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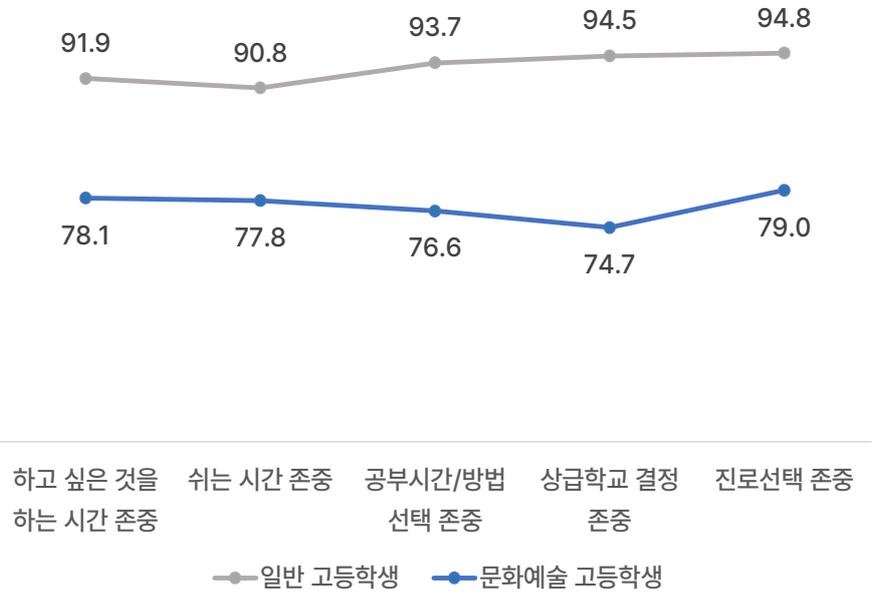
-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일반 학생보다 의사 결정 시 부모님의 지지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문화예술전공 고등학생과 일반학생과 그 차이가 더 큼
 - 비정규교육생이 정규교육생보다 의사 결정 시 부모님의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 선택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의사 결정 시 부모님의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급학교 결정과 진로 선택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3] 문화예술 중학생 의사결정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그림 Ⅲ-34] 문화예술고등학생 의사결정에 대한 부모님 태도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표 Ⅲ-20] 청소년문화예술인 의사결정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단위: 점)

구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 존중	쉬는 시간 존중	공부시간/방법 존중	상급학교 결정 존중	진로 선택 존중
전체 (n=343)	78.1	77.6	76.9	75.5	78.8
정규교육생 (n=218)	79.4	79.2	78.1	75.0	80.4
비정규교육생 (n=125)	75.9	74.9	74.7	76.3	75.9
대중예술 (n=178)	76.8	75.7	74.9	72.8	76.6
순수예술 (n=162)	79.7	79.6	78.8	78.0	80.9

○ (의사 결정에 대한 교사/강사의 태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진로 선택 및 상급학교 결정과 관련하여 교사나 강사로부터 대체로 존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정규교육생과 비정규교육생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급학교 결정과 관련하여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교사나 강사로부터의 존중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1] 청소년문화예술인 의사결정에 대한 교사/강사의 태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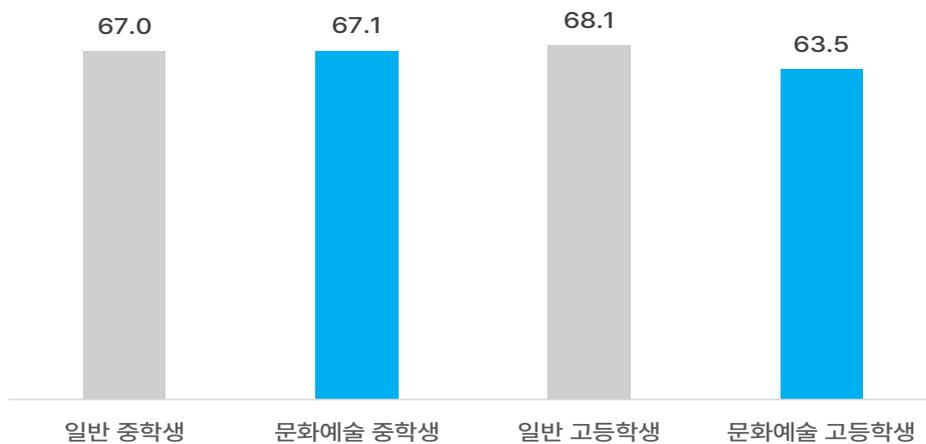
구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 존중	쉬는 시간 존중	공부시간/방법 존중	상급학교 결정 존중	진로 선택 존중
전체 (n=343)	73.4	72.8	74.2	75.2	77.5
정규교육생 (n=218)	73.4	73.7	74.2	75.6	77.9
비정규교육생 (n=125)	73.5	71.3	74.3	74.5	76.8
대중예술 (n=178)	72.8	70.7	74.7	73.8	77.6
순수예술 (n=162)	74.2	75.2	73.7	76.9	77.5

6. 인격권

1) 권리 수준 인식

- 청소년문화예술인은 본인의 권리 수준이 대체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청소년과도 비슷한 수준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문화예술고등학생이 일반고등학생보다 본인의 권리 수준이 더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5] 청소년의 권리 수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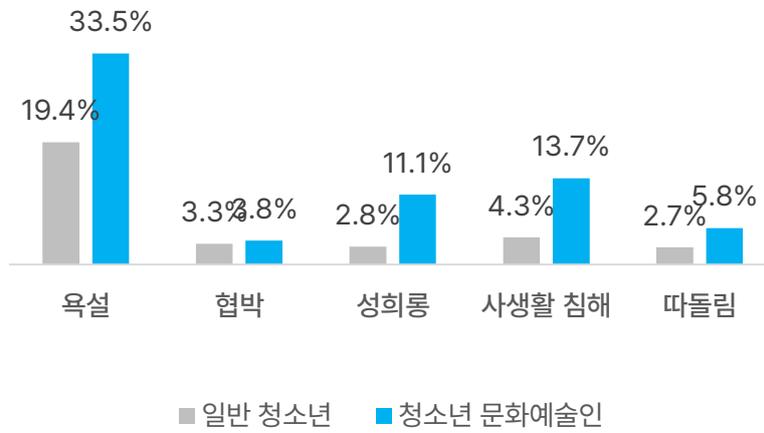


2) 온라인 권리 침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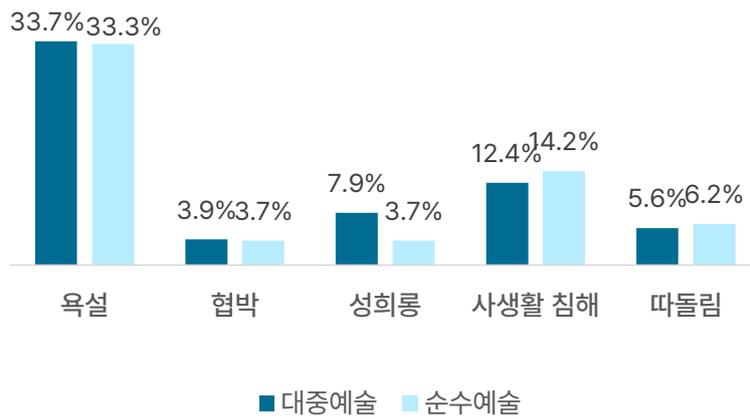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침해 경험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으며, 특히 온라인(댓글, 채팅, 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이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보다 온라인에서 성희롱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그림 III-36] 청소년 온라인 권리 침해 경험



[그림 III-37] 청소년문화예술인(대중/순수예술) 온라인 권리 침해 경험



IV

FGI

제1절 응답자 특성

제2절 FGI 결과

제1절 응답자 특성

○ 당사자와 관계자, 예술 분야, 장르를 고려하여 총 16명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함

[표 IV-1] FGI 응답자별 특징

구분	응답자	특징
청소년 문화예술인 당사자	현업종사자	• 뮤지컬 아역배우로, 초등학교 5학년. 현재 뮤지컬 공연 중
	연습생	• 아이돌 지망생으로, 홈스쿨링하면서 보컬·댄스학원 다님
	정규교육생	• 한림예고 2학년 기타 전공·보컬 전공 • 서울미고 2학년 서양화 전공 • 전통예중 3학년 정가 전공: 뮤지컬 아역배우로 활동하다가 전공 변경
	비정규교육생	• 연극·뮤지컬 배우 희망. 일반고 졸업 후 대학교 휴학 중 • 문학작가 희망. 일반고 졸업 후 한예중 편입 준비 중
	중도포기자	• 일반고 졸업 후 미대 환경조각과 진학. 대학 졸업 후 문화재단 근무 중 • 한림예고 휴학생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계자	기획사 관계자	• 前 기획사 비주얼디렉팅팀
	실기강사	• 실용무용과 교수: 순수무용을 가르치다가 현재 실용무용을 가르침 • 보컬트레이너: 前 기획사 신인개발팀 • 한국무용 강사
	학부모	• 아이돌 지망생 학부모 • 전통예중 재학생, 뮤지컬 아역배우 학부모

제2절 FGI 결과

1. 청소년 문화예술인 당사자

1) 현업종사자

■ 공연에 따라 뮤지컬 아역배우의 일상생활이 영향받음

- 전반적으로 현재 활동에 만족함. 공연 유무에 따라 생활패턴이 달라지며 공연 있는 날에는 4교시 후 조퇴해서 공연장으로 이동함
- 주 3회 정도 공연에 참여함. 전체 리허설의 경우 3~9시간 정도 장시간으로 진행됨. 공연 일정은 조율이 어려움
- 캐스팅 시 키, 얼굴, 목소리, 이미지 등 배역과의 적합성이 중요함

■ 뮤지컬 아역배우의 고충 : 장시간 대기, 늦은 스케줄, 소속사 부재, 잦은 학교 결석

- 뮤지컬 출연 시간은 10분 정도지만 공연 시작 전과 출연 이후 남은 공연시간에 대기 해야 함. 공연은 보통 오후 10시 30분 정도에 끝남. 연습은 오후 9시 30분~10시 30분까지 진행됨
- 대부분의 아역배우는 소속사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스케줄 조정이나 현장에서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 공연으로 인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공연 때문에 소풍 등 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

■ SNS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인식 미비

- SNS를 통해 캐스팅 제의를 받기도 함. SNS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음

■ 다양한 진로 선택 고려

- 뮤지컬 배우로 계속 활동 희망함.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유튜버, 배우, 가수 등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고려 중임

2) 연습생

■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 학업과 실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면시간의 부족, 잦은 부상 등이 신체적 어려움의 주요 요인

임

- (부족한 수면 시간) 학원, 레슨 등 연습하고 10시에 귀가함. 새벽 2~3시경 취침하고 있음
- (신체적 부상) 발목 무상, 근육통 등 신체적 부상 경험이 있음
- 외모와 실력에 대한 경쟁 스트레스, 공연이후 느껴지는 공허함, 오디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등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함
 - (외모와 실력에 대한 경쟁 스트레스)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의상, 파트 분배 관련 경쟁이 있었음
 - (공연 이후 느껴지는 공허함, 상실감) 공연 준비를 위해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공허함을 느낌. 연습한 만큼 공연에서 잘하지 못하거나 실력이 늘지 않으면 부담이 됨
 - (오디션 시 냉담한 반응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오디션 자체가 극한의 경쟁상황이라 예민한 상태에서 나를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냉담하게 반응하면, 나의 실력에 대해 좌절하게 되는 등 심리적으로 힘들

■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

- (학업과 연습 병행 부담) 데뷔의 불확실성으로 학업을 중요하게 여김. 하루에 4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음. 예술고등학교 진학도 고려 중임
- (매우 어려운 데뷔 연령에 대한 불안) 아이돌 지망생으로서 나이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을 느낌

■ 제한적인 진로 정보 수집 및 탐색 방법

- SNS, 인터넷 검색, 유명 연예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
- 학원 선택은 주로 지인 추천이나 인터넷 검색으로 이루어짐: 무대 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학원을 선호함
- 학원 선생님을 통해 진로상담 및 업계 내부 정보를 습득하는 편임

■ 아이돌 지망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아이돌 지망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도 아이돌 준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함

‘너는 공부 안해서 좋겠다’, ‘너는 춤추고 노래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도 신경이 쓰이고 ... 너무 간절한데 눈물 흘리면서 연습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공부 절대 안 봐요. 간절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 아이돌 지망생(14세)

3) 정규교육생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 학업과 실기 병행 부담

- (일반 학생들과 다른 학습 패턴) 학업과 실기를 모두 챙겨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일반고 학생들과 다른 학습 패턴을 가짐. 학원 의존도가 높으며 내신·정시·실기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다가옴

평일에는 실기를 해야 해서 주말에 내신 학원을 다 몰아서 다녀요. 그래서 내신(시험) 기간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학원에 있다가 오고...

- 순수예술 정규교육생(18세)

- (전공 중심의 성적 강조) 학교별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전통예종의 경우 전공을 더 중요시하는 느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전공을 못하면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함. 예고·대학입시를 위해 공부가 병행되어야 함

■ 신체적 건강

- 많은 학생이 허리 통증, 손목 통증 등의 신체적 문제를 경험하지만, 바쁜 스케줄로 인해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못함

■ 정신적 건강

- (경쟁적인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외로움) 친구이기는 하지만, 경쟁의 상대이기도 하여, 친구를 깊게 사귀지 못하고 경쟁 상대로 느껴지기도 함

입학할 때부터 경쟁해서 들어온 사이고 입학해서도 계속 시험보고 하다 보면 친구인데도 경쟁심이 들고 ... '겉친구'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많고 ... 다들 경쟁 속에 있으니깐 정말 친하더라도 재가 나보다 잘 그리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순수예술 정규교육생(18세)

- (예술종 진학 후 심리적 안정) 초등학교 때보다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 공감대가 높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 있어 행복함
- (심리상담의 효과성 불신) 심리상담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심리상담을 잘 받지 않음.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리상담보다는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음

■ 정규교육생의 고충

- (예술 전공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불확실한 미래,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한 예술 전공자에 대한 무시와 학업, 실기 모두 챙겨야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어려움
- (인간관계 스트레스) 예술 전공자들 중에는 예민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이 많아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음

■ 대중예술 분야에서의 대학 진학과 학습권

- **(전공분야별 대학 진학 필요성 차이)** 가수와 기타리스트 각각의 진로에 따라 대학 진학의 필요성이 다름. 가수는 대학을 통해 네트워크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기타리스트는 대학 밴드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음. 아이돌로 활동 중인 경우 대학 진학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솔로 아티스트나 음악을 더 연구하고 싶은 경우 대학 진학이 권장됨
- **(기본적 학습권의 중요성)** 학습권은 중요하며, 예술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학습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음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함께 기본적인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
- **(학습 이외 학교의 역할 중요성)** 학교는 사회성을 배우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소로 생각됨.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학교가 청소년 시기에 가장 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 대중예술 정규교육생(18세)

■ **진로 정보 획득 경로**

- 주로 학원 선생님과 방과후 선생님(실기강사)을 통해 정보를 얻음. 이들에게 의지하여 진로상담을 진행하기도 함
- 진로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어 일주일에 2시간씩 진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나 큰 효과는 없음. 수업에서는 미술 외 다른 진로를 알려주기도 함

■ **낮은 진로 유연성**

- 나이가 어려서 진로를 변경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부터 미술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진로를 고민하다가도 다시 미술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음
- 다른 진로로 바꾸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음. 다른 진로에 대해 가볍게 상상만 하고 결국은 미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미술 안에서 다양한 길이 있음을 학생들도 알고 있지만 현재는 직업보다 대학입시에 대한 생각이 더욱 커서, 일단 하던 것에 집중하다 보니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함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게 미술밖에 없어서 다시 미술로 돌아오거든요. (다른 진로는) 그냥 정말 상상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도 재밌겠다, 그러다가도 미술이나 해야지…….

- 순수예술 정규교육생(18세)

■ **진로상담과 상담센터에 대한 의견**

- **(진로 선택에 대한 도움)**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방향이 불확실할 때, 전문적인 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것. 상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명확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경험과 정보 부족)** 많은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상담센터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함. 특히 예술 분야와 같은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특수한 분야에서는 관련 정보와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그 분야의 진짜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죠.

- 대중예술 정규교육생(18세)

- **(미래 계획의 구체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단계와 준비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 서비스가 시행되면 좋을 것 같음
- **(중학교 시기에 더 필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대중예술 분야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이 거의 없어서 학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없고,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중학교 시기에 이쪽 분야에 대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함

■ 진로상담 지원 방안

- **(전공별 롤모델이 진행되는 강의)** 전공 관련 상담 및 조언 제공
- **(현직자의 진로 선택 스토리를 담은 영상)** 전공 선택 이유와 준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업로드
- **(예술전공 활용 진로)** 예술인 외 예술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 안내

4) 비정규교육생

■ 조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조례 제정이 청소년 예비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으로 여겨져 매우 고맙고 감동적이라고 표현함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감동적입니다. 청소년이 예술을 접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어려운데,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는데,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고맙죠.

- 대중예술 비정규교육생(19세)

■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학업과 실기 병행 부담

- 수능과 한예종 입시를 병행하면서 글쓰기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확보하지 못함
-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연극 전공을 포기하고 문과 대학으로 진학함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연기에 올인하지 않아요. (연기자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공해봤자 중간에 연기를 그만두거나 하면 쓸모없는 학벌이 되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연기 전공 학사가 저한테 주는 메리트를 크게 못 느꼈어요. ... 제가 꿈꾸는 이상향은 연극 배우가 되어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벌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살면 좋은데 어쨌거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항상 저도 그 두 개에서 엇갈리는 것 같아요.

- 순수예술 비정규교육생(20세)

■ 교육과정 내 예술분야 관련 전문적인 지도 부족

- 일반고에서 문학 관련 지도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문예 동아리도 없어서 신문부 활동으로 대체했으나, 원하는 글쓰기와는 거리가 있었음
- 홍대 디자인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는 미술 선생님에게 그림이나 생활기록부 관련 조언을 받아서 부럽다고 생각함. 전문가에게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보고 싶은데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음

문학 쪽으로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문학 선생님이라도 학문적인 국문과 쪽이신 분이 많았고 ... 한예종의 서사창작과에는 오로지 글을 쓰려고 온 친구들만 있을 테고 실제로 작가이신 교수님들한테서 수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집단에 저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 순수예술 비정규전공생(20세)

- 연기학원을 다니고 싶었으나 높은 학원비와 긴 이동시간으로 인해 학원은 포기하고, 유튜브를 통해 대본을 읽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힘

■ 예술 전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연기 전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연기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편견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서 준비하려 했음. 선생님도 다른 전공으로 대학 진학할 것을 권유함
-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

■ 온라인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

- 학원에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기 활동을 하고자 여러 곳에 프로필을 돌리다 보니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 제한적인 진로 정보와 진로 습득 경로

- 인터넷을 통해 정보는 찾았지만, 사람에게 직접 듣는 것과는 달라,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얻기 어려웠음. 유명 공모전이나 작가 인터뷰 위주로 찾아봄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다보니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얻기 어려웠어요. ... 작가나 글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으니깐요. 거의 인터넷만 찾아봤던 것 같아요.
- 순수예술 비정규전공생(20세)

- 정식 교육이나 레슨 없이 유튜브와 현장경험을 통해 배웠음. 포털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거나 단편 영화 배우 사이트의 공고를 확인함

■ 진로상담 및 지원의 필요성

- 작가 지망생으로서 진로상담과 같은 지원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진로 탐색에 있어서 명확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주는 상담이 필요함

이 진로를 원하면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떨겠냐는 단편적인 방향성만 제시받는 걸로도 자기 확신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 순수예술 비정규전공생(20세)

- 구체적인 희망 사항: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시기에 학교 밖에서 대중예술분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상담사가 진행된다면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다. 일단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든 듯한 마음이 들 것 같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주변 사람들과는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좀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결책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대중예술 비정규전공생(19세)

5) 중도포기자

■ 진로 정보 획득 경로

-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예체능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었고, 미술 관련 정보는 학원을 통해 얻음

■ 전공선택과 회의감

-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으나, 예술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전공에 회의를 느낌
- 무대 디자이너를 준비하면서 직업의 소수성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경험하고 직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짐

무대 디자이너의 경우 프로젝트성으로 일이 시작되고 무대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갖기까지 임금 체불이라든지 다친다든지 위라벨이 없고 노동법 위반 같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고 ... 그럼에도 내가 디자이너까지 올라갈 수 있는냐는 또 별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대거나 혹은 그런 부당함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더라고요.

- 순수예술 중도포기자

■ 진로 전환의 결정

- **(예술 관련 행정직으로 진로 전환)** 예술계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문화재단)으로 눈을 돌림. 첫 인턴 경험 후 공공기관에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함
- **(진로 정보의 부족)** 전공과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으며, 학교에서도 실질적인 취업 정보 제공이 부족했음
- **(정보 제공 시기의 중요성)** 진로 전환에 대한 정보는 대학 1~2학년 시기에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전공에만 집중하여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 시기에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진로 전환 시 어려움

- **(예술계의 낮은 취업률)** 인터뷰 대상자는 조각을 전공했으나,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 많은 동기들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카페를 차리거나 대학원을 진학해 연구를 계속하거나, 작가의 길을 선택했음. 그러나 이러한 선택들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
-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예술계의 낮은 취업률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는 예술 전공자들이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 **(취업 정보의 부족)** 학교나 교수들로부터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는 정보나 지원이 거의 없었음. 교수들 또한 학업과 개인 작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조언을 얻기 어려웠음
- **(진로 전환 시 긴 진로 탐색 과정과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 미대 졸업 후 방황하며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고, 별도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음. 실무에 투입됐을 때 예상과 달라 다시 다른 일을 준비하기도 함

예고 출신이고 저랑 같이 미대를 졸업했지만 지금 아예 다른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 공통점이 졸업하고서 한동안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2년 정도 계속 직업 교육을 받는다는지 프로그램을 배운다는지 이런 과정들을 별도로 겪고 그 이후에 취업을 준비한 거거든요. ... 나중에 진로를 바꿨을 때 진로 탐색 과정이 되게 길고 탐색을 해서 잡은 진로가 실제로 실무에 투입됐을 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니다가 또 바꾸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 순수예술 중도포기자

- **(진로 전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어릴 때부터 예술을 시작한 경우, 인생의 절반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전공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 전공 변경을 어려워함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 (시간 격차로 인한 불안감) 예체능 전공생은 사회의 일반적인 취업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없어서 큰 부담으로 다가옴. 또한, 내가 예술 전공을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오히려 일반 학생들과 격차를 만들어 메울 수 없는 시간적 격차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

내가 적어도 인문계 나온 친구들을 이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저 친구들이랑 나의 격차가 8년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의 4년은 제로가 됐고, 저 친구들은 4년을 앞서 나갔고 ... 교수들은 학업과 개인 작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조언을 얻기 어려워,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 순수예술 중도포기자

■ 순수예술 분야 취업 중 권익 침해 경험

- 조형회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남성 동료들이 성매매 경험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 이를 불쾌하게 느꼈으나 그 자리에서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는 직속 선배들에 의한 상황이었고, 외진 위치에 있어 더더욱 대응하기 어려웠음
- 작가 시다 경험: 개인 작업을 돕기 위해 용접 아르바이트로 고용됨. 그러나 비 오는 야외에서 전기 용접 작업을 지시했으며, 방독면 없이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작업을 실내에서 진행하게 함. 작업 중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날부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통보받음. 당시 아르바이트 시급은 일반보다 높았지만, 이는 위험과 부당함을 감수해야 하는 대가였음
- 입시학원 강사: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며, 하루에 최대 15시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음.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조건이 문제였으며, 이는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됨

전공 분야 특성상 선후배 및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불쾌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워요.

- 순수예술 중도포기자

2.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계자

1) 기획사 관계자

■ 조례에 대한 인식

- 청소년 연기자 및 예술인을 보호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음
-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

■ 연습생 및 아이돌의 계약 상황

- 연습생 생활 동안 연습 및 생활비가 제공되지만, 데뷔 후 수익으로 정산됨. 실패한 그룹은 빚을 떠안음
- 아티스트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나 교육은 거의 없음

- 연습생 숙소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나, 데뷔 후에는 회사 근처 아파트를 제공함

■ 아이돌 및 연습생의 주요 문제점

- 부족한 사회적 경험: 연습생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래 간의 경쟁과 서열 문제가 심각함
- 성장할 권리: 학습권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랑 싸워도 보고 갈등 해결도 해 보고, 이게 별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껴봐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안되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자기들이 지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면서 알아나가야 할 것을 겪지 못하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안타깝다고 느꼈어요.

- 前 기획사 비주얼디렉팅팀

- 정신적 스트레스: 데뷔 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임

■ 관행적 체중 관리 요구와 외모 지적

- 비주얼디렉팅 팀에서 외모 지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짐. 체중 관리와 성형 수술 등에 대한 압박이 있음
- 체중 관리와 관련된 극단적인 조치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함

■ 학교 자퇴 강요

- 기획사별로 차이가 있음. 학교에 다니면서 준비하거나 예술 쪽으로 진학을 권유함.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연습할 수 있는 상황임
- 데뷔 시기가 중요함.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할 수 있음

■ 스태프의 아이돌 및 연습생에 대한 인식 및 지침 부족

- 스태프들은 아티스트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교육이 부족하며, 대표급 인사의 행동에 크게 좌우됨.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아티스트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몰라요. ... 아티스트랑 웬만하면 접촉하지 말라는 말만 사수를 통해 들었어요. ... 소속사 대표에게 아티스트는 상품이니까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 前기획사 비주얼디렉팅팀

■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부족 및 중도 포기

-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큼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 연습생들은 주로 잘리거나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기회비용을 감내해야 함
- 중도 포기 후 면세점 프로모터나 승무원 등 외모가 중점인 직업으로 전향함

■ 필요한 지원 및 보호 방안

- **(심리상담 및 진로 교육)** 연습생 및 아이돌 대상의 심리 상담과 진로 교육이 필요하지만, 연습생들은 외부의 도움을 적으로 생각할 수 있음
- **(다양한 경험 제공)** 아티스트들이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준비가 부족함. 좁은 사회 안에서만 생활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엔터테인먼트업계 취업 희망 학생 대상 객관적 정보 제공)** 업계에 대한 정보를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2) 실기강사

■ 조례 관련 인식

- **(대중문화예술에 집중된 조례의 한계)** 조례가 주로 아이돌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술인 기준은 순수예술에 더욱 적합함. 특히 연습생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음
- **(지원 확장의 필요성)** 학원에서 10년을 다닌 것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청소년 연기자에 대한 노동법 제정도 필요함
-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 연습생의 심리적 상태를 지원할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 마련 필요)** 기획사 인증 방법, 상담기관 운영 등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이 필요함

■ 전공 분야에 따른 고질병: 외모와 다이어트 강박

- 외모와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이 강하며, 학생들이 극한의 다이어트를 통해 심리적·신체적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존감 저하, 섭식장애, 우울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함

감정을 드러내야 하니까 눈썹 미간의 근육 움직임을 위해 필러,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미백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다니기도 하고, 경락과 마사지, 도수 치료도 병행을 ... 다이어트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은 정상적인 활동을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2학년 말부터 그런 증세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병원까지 가게 됐고, 실제로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물건을 자꾸 빠뜨린다는지, 수업 시간에 가져가야 할 것을 놓고 온다든지, 순서를 못 외운다든지, 자꾸만 틀린다는지 약 순환으로만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 순수예술 실기강사

■ 경쟁으로 인한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

- 예종과 예고 학생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이러한 경쟁이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짐. 특히,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의 불안감이 크며, 심리상담과 솔루션이 필요함

예종예고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루 종일 함께 하니까 비교 대상이 늘 옆에 항상 존재해 있는 거예요. ... 경쟁을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 순수예술 실기강사

■ 예술 전공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조언을 구할 멘토가 없어서 심리적 문제가 심각함

예고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춤추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용무용은 일반 학교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따로인 거잖아요. 거의 외계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간의 교우 관계, 아니면 격한 춤을 춘 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볼 멘토도 없고 목표도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울과 공황으로 이어져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 대중예술 실기강사

■ 심리상담 지원 방향

- **(현실 직면을 돕는 상담)**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위로보다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 필요함. 이는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에서 직면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전문가의 중요성)** 예술 분야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담당해야 함
-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심리 지원 차이 반영)**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심리 지원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대학생들에게는 직업과 생계에 대한 상담이 특히 중요함
- **(가정환경과 성장환경의 영향 고려)** 학생들의 심리 상태에는 가정환경, 교우 관계 등이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상담이 필요함

■ 문화예술분야의 진로 및 직업 정보 부족

-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직업 전환을 고민할 때, 관련 직업 정보가 부족하여 불안감을 느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진로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춤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하나 했을 때 이 친구들의 가장 문제점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 자기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무용과 접목된 그런 직업군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 대중예술 실기강사

■ 대중예술분야 진로 경로의 복잡성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 (진로 경로의 불확실성) 대중예술 분야에서의 진로 경로가 불명확하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통한 신입 개발 방식이 변화하면서 더욱 복잡해짐
- (계약 조건과 불공정성) 연습생과의 계약이 흔하지 않으며, 일부 기획사에서는 대학 진학을 금지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존재할 수 있음

■ 진로상담 지원 방향

- 진로 전환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예술 분야 외의 다른 요소를 개발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중요함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관심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무용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고 '나는 이제 무용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둬야 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은 해도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 때문에 전환 못 하는 거지...

- 순수예술 실기강사

3) 학부모

■ 조례에 대한 인식

- 아이들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 좋았음. 진로상담 시스템이 갖춰지길 희망함

■ 학교 수업과 예술 활동 병행으로 인한 시간 관리의 어려움

- 연습으로 인한 학교 결석이 잦으며 학교 행사(소풍, 체험학습 등) 참여에 제한이 있어 친구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연습으로 인해 학교 결석이 잦아서 학습부 족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소풍이나 체험학습과 같은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 그래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 현업 청소년 문화예술인(12세) 학부모

■ 아이돌 연습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지역특성상 문이과 지망생이 대부분이라 자녀 주변에 아이돌을 지망하는 친구들이 없음
- 아이돌 지망생은 공부에 관심이 없고, 노는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음
- 아이돌 지망생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 뮤지컬 현장에서의 아역배우 보호

- (샤프롱 제도) 일부 기획사는 아역배우 전담 인력으로 공부를 도와주기도 함
- (장시간 리허설 및 대기) 아동청소년에게 무리인 12시간의 장시간 리허설을 하기도 하지만 개선 되어

가고 있음

- **(불공정 계약)** 아역배우 대상의 표준계약서 부재로 성인 배우에 비해 매우 낮은 출연료를 받는 사례도 있음
- **(스태프의 폭언)** 스태프가 아역배우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연습을 시키지 않은 채 비난만 해서 상처받고 아역배우를 그만둔 사례도 있음

아역배우에게 막말을 해서 상처받고 떠난 아이들도 있어요. 제작사에서는 배우를 연습시켜서 공연을 올려야 하는데 연습은 시키지 않고 비난만 하기도 해요.
 -현업 청소년 문화예술인(12세) 학부모

■ 제한적인 진로 정보 습득 경로

- **(높은 학원 의존도)** 아이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학원과 레슨 강사가 유일함. 학원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방법이 없음. 사실상 자녀의 진로 준비 과정을 학원에 맡긴 상태임

루트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학원밖에 다닐 수가 없죠. 학원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 아이돌 지망생(14세) 학부모

- **(학원을 통해 실전 경험 확보)** 매주 또는 매달 연합오디션 실시를 통해 기획사 오디션 기회 제공. 버스킹 기회 제공

■ 진로 준비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

- 아이돌이 될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오디션 발탁/탈락 기준에 대해 알 수 없어 늘 불안함

유튜브에서 아이를 보고 대형기획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오디션을 본 후 탈락했어요. 탈락기준에 대해 문의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죠.
 - 아이돌 지망생(14세) 학부모

■ 진로 선택과 대안

- **(실기 위주 교육으로 인한 학업 소홀 문제)** 내신 성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음악, 무용 분야의 경우 실기 연습 시간 확보를 위해 학업을 소홀히 하기도 함

약기하는 애들은 들이는 시간만큼 기량이 느니까 약기 하는 애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 공부 내팽개치고 실기에만 목숨 거는 애들이 있거든요. 시험 20점, 30점 받고 ... 시험 기간 때도 시험공부 안 하고 실기실에서 맨날 실기를 하는 거예요.
 - 순수예술 정규교육생(14세) 학부모

- **(부족한 진로 대안)** 예술 전공을 하면 예술인 외 예술 경영 등 진로 대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 **(진로변경 시 부족한 진로 대안)** 부상, 성장 한계 등으로 인한 진로 변경 시 대안이 부족함. 기존의 습득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진로 모색이 필요함. 또한 중도 포기 후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진로상담 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필요

- **(직업 관련 자세한 정보 제공)** 진로상담에서 아이돌 직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희망함
- **(냉정하고 객관적인 내용 전달)** 진로상담 시 아이돌에게 필요한 자질 및 재능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해주기를 희망함

■ 지원 시스템 개선 방향

-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 예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학업-예술 활동 병행 지원 방안 고려
- 중도 포기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대안 진로 제시
- 예술 관련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 제공
-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V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 연구 결과 요약

1) 청소년 문화예술인 현황

[표 V-1] 청소년 문화예술인 현황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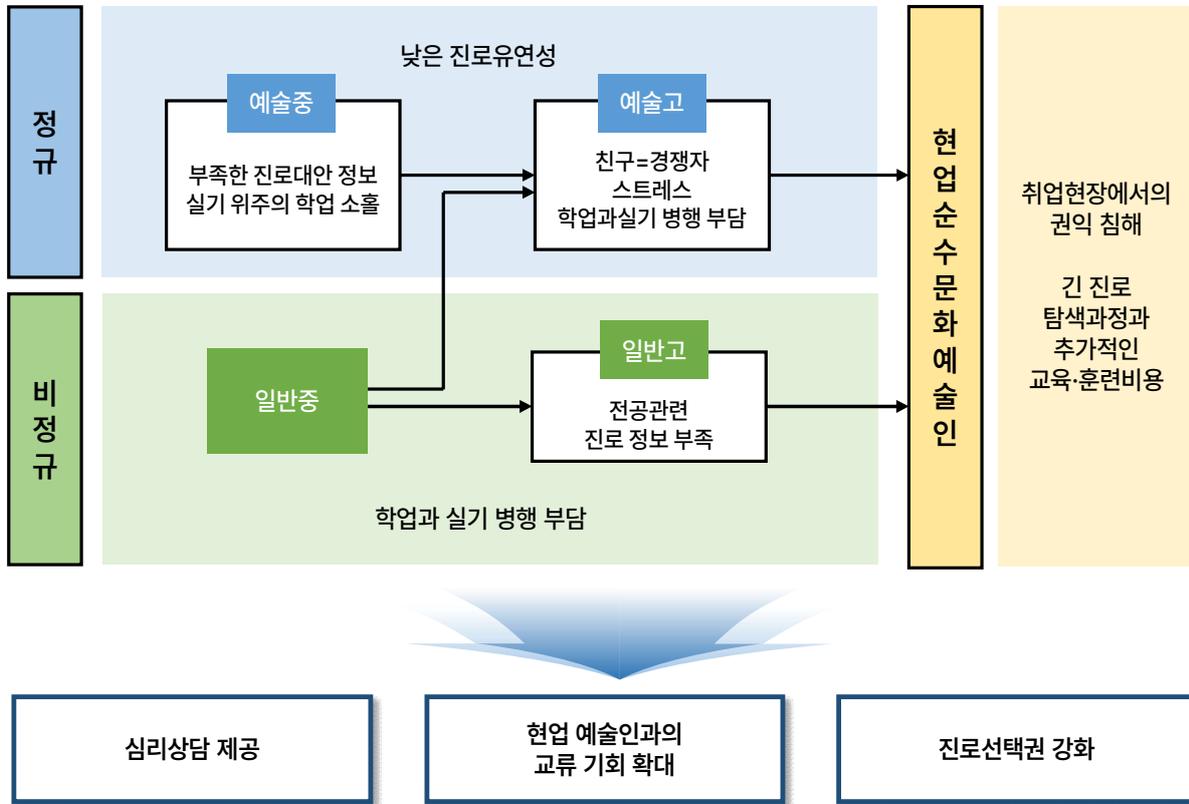
구분	현황
수면권/휴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와 학업의 병행으로 수면부족과 여가없는 생활 • 여가를 통한 자기점검, 자아성찰의 기회 박탈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도에 대한 낮은 자신감, • 부상도 꿈을 이루려 방치·대중예술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 열악
학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과정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학교생활은 꿈을 이루는 과정과 의무의 괴리 • 학업 이외에도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적 경험 부족
진로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청소년에 비해 진로자신감은 높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진로상담, 정보 접근성 제한 • 낮은 진로유연성과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에 대한 정부 부족으로 진로선택권 낮아
자유선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결정으로 시작된 문화예술 진로에서 진학 및 세부적 진로는 보호자가 선택
인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리인식 수준은 높으나 온라인에서의 권리침해 보호 방안 필요

2)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현황 및 지원 방향

- 순수예술 분야는 예술중학교에서 예술고로 진학하거나, 일반중에서 예술고로 진학하는 정규교육생과 일반고에서 전공/진로를 준비하는 비정규교육생으로 나뉨
- 정규교육생의 경우 진로 대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진로 유연성이 낮으며, 친구가 곧 경쟁자인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교육생의 경우 전공/진로 정보가 부족하며, 학업과 실기를 병행에 따른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 진학 및 현업 문화예술인이 되어서도, 낮은 진로 유연성과 전공/진로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진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긴 진로 탐색 과정을 겪고 있음
- 순수예술 분야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현업 예술인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및 전공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들의 진로 선택권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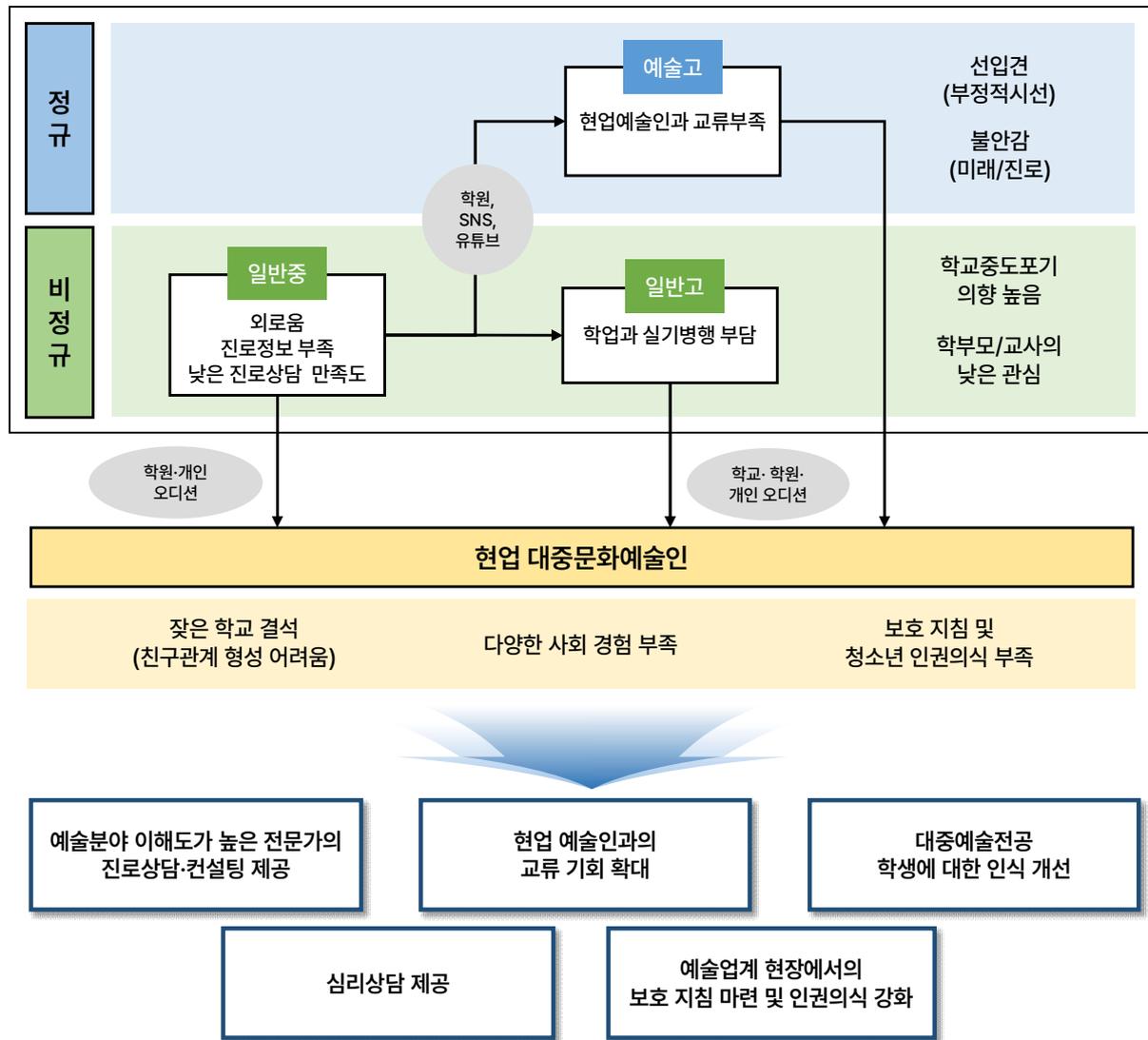
[그림 N-1] 순수예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현황 및 지원방향



3)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현황 및 지원 방향

- 대중예술 분야에는 예술중이 없으며, 일반중에서 예술고로 진학하는 정규교육생과, 일반중에서 일반고로 진학하여 전공/진로를 준비하는 비정규교육생으로 나뉨
- 예술고에 다니는 정규교육생의 경우, 전공/진로 정보는 비교적 풍부하나, 현업예술인과의 교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며, 대중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대중예술 분야 특성상 중학생때부터 전공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예술 전문 학교가 아닌 일반중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음
- 특히 학교에 대중예술 분야에 대한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거의 없어 교사의 관심도가 낮으며, 진로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학원, SNS,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청소년 시기에 현업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결석이 잦고, 다양한 사회 경험이 부족하게 됨
- 대중예술 분야 청소년 문화예술인에게 심리상담과 더불어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진로상담 및 컨설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대중예술을 전공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와 현장에서의 인식 개선과 이들에 대한 보호 지침 마련이 요구됨

[그림 M-2] 대중예술 청소년 문화예술인 현황 및 지원 방향



제2절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정책 제안

1.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

1) 현황

- 많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연습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다녀도 학업보다는 실기연습과 오디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음
 - 아이돌그룹 A씨의 경우, 학업에 대한 열정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에서 학업 포기를 종용하기도 함. 결국 소속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입시를 준비해 예고에 진학함³⁾
 - 아이돌그룹 B씨의 경우, 연습생 시절을 ‘중노동’이라고 표현할 만큼 고된 연습으로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도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능했음. 피곤에 절어 학교에 가면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교우관계도 망가짐⁴⁾
 - 1년간 한국의 아이돌 트레이닝 학원에 다닌 미국인 아이돌 지망생은 “많은 친구들이 연습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다니면서도 교육에는 신경 쓰지 않고 연습과 오디션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죠. 아이들이 못 됐을 때는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니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렵죠. 아이들이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인터뷰함⁵⁾
- 청소년 문화예술인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함. 청소년의 사회적 경험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짐. 문화예술을 전공하더라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함

2) 제안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의무교육 보장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내 관련 조항 마련
 -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학교 수업 시간대 활동(방송출연, 행사참여 등) 제한 규칙 등 포함
 - 표준계약서 마련에 기획사/제작사의 참여 및 의견 반영
- 학교 수업 시간대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보충학습활동을 위한 기획사 자체 시스템 구축
 - 기획사/제작사와 소속 연예 인간 상생 협력을 위해 기획사/제작사의 적극적 협조 요청

3) 스포츠월드, '[단독 인터뷰] 바퀴벌레 득실거리는 숙소, 학업 포기 종용...000 부모 입 열었다', 2024.7.27. <https://sportsworldi.com/view/20240724512671>

4) 비즈한국,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15년 노예계약서, 변호사 상의하려니 안 된다더라"', 2024.7.30.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016>

5) 비즈한국,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미국인 연습생이 겪은 한국식 트레이닝 시스템은...', 2024.8.23.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135>

2. 청소년 문화예술인 전문 심리·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 현황

-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전문 심리 및 진로상담 시스템 부재
 - 진로와 관련된 정보는 학원과 실기 강사,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의존도 높아, 진로 정보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고 파편적
 - 학원을 통한 상담은 입시 결과 및 연예계 데뷔 중심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진로 가능성에 대한 상담 부족
 - 학교 내 진로 상담교사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 기획사에 소속되어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연습생)의 경우 비밀 보장에 대한 우려로 심리상담을 꺼림
 - 현재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 심리상담'이 유일함. 2019년 111명(건수 329회), 2020년 146명(699회), 2021년 176명(902회), 2022년 661명(2612회)으로 상담인원이 해마다 크게 늘어남.⁶⁾ 그러나 아이돌과 연습생 등 대중문화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한계가 있음
- 현업 예술인과의 소통 기회 부재
 - 다른 분야와 달리 현업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과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여, 현업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매우 제한적임

2) 제언

■ 청소년 문화예술인 전문 심리 상담 제공

-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불안정성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 2022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인 심리상담 결과를 살펴보면 불안이 21.53%로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14.45%), 스트레스(14.16%), 정서조절(14.16%), 우울(8.5%), 자기이해(8.22%), 진로(7.93%), 자살사고(1.7%) 등으로 이어짐. 이는 대체로 '자기관리' 문제인 것으로 풀이됨.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정서 관리와 조절의 어려움'(정서조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의 어려움'(우울) 등을 주로 토로하며 '나를 이해하고 싶고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것'(자기이해)도 상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⁷⁾
-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면서 맞닥뜨리는 나약함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상담 진행

■ 청소년 문화예술인 전문 진로 컨설팅 제공

-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 제공

6) 한겨레, '연예인 심리상담 1년새 4배... '합숙하며 고립' 시스템 바뀌야', 2023.5.1.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90010.html

7) 한겨레, 위의 기사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 진로 결정 시점부터 진로 컨설팅 진행
- 진로컨설팅 시 문화예술인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재능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 제공 필요
- 비정규교육생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고려하여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검토

- 청소년 문화예술인 관계자(학교 교사, 실기강사 및 학부모) 대상 문화예술분야 정보 및 상담 제공
 - 관계자(학교 교사, 실기강사 및 학부모)와 청소년 문화예술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관계자 대상 정보제공 및 학부모 대상 심리 상담 제공
 - 관계자들의 지지를 통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

- 청소년 문화예술인 전문 심리 상담가 및 진로 컨설턴트 발굴
 -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심리상담가 및 진로컨설턴트 발굴
 - 상담자가 가진 예술분야 배경 및 지식을 활용한 직업 연계 방안 제안 등 보다 현실적인 진로 방향 제안

- 현업 예술인과의 만남 기회 제공
 - 현업 예술인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진로 방향성 설정에 도움 제공
 - 전공별 현업 예술인, 전직예술인 및 예술전공을 활용한 직업보유자의 강연, 상담, 진로 탐색 과정 공유 등의 방식 고려

3. 청소년 문화예술인 보호 지침 및 인식 강화 교육

1) 현황

- 순수예술·대중예술 관계없이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힘들어 함
 - 학업과 실기 병행해야 하는 부담에도 학업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편견, 불확실한 미래와 적은 소득 등으로 인한 예술 전공자에 대한 무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
- 문화예술 훈련 및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문화예술 훈련 및 제작 현장인력에게 청소년 문화예술인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교육이 부족함.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하는 지침은 개인적인 조언뿐이고, 공식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없었음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청소년 문화예술인 보호 방안 부재 상황에 대해 “판례상으로도 연예인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미성년자일 경우에 학습권, 수면권 등이 (노동법에) 충족할 수 있게 권고는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함⁸⁾

- 아역배우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성인 배우에 비해 매우 낮은 출연료를 받는 경우가 있음
 - 성인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는 가수과 배우를 중심으로 한 계약서로 구분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라는 한 종류의 계약서만 존재함. 해당 계약서의 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아이돌 및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중예술에 국한되지 않고, 미술, 공예, 공연예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제언

■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필요

- 학교 교사(진로상담교사 포함)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문화예술분야 및 현업예술인에 대한 자료 제공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개선

■ 관계자(학교 교사, 실기 강사, 현장 스태프 및 학부모) 대상의 청소년 문화예술인 보호 지침 안내

- 일부 공연예술분야에는 ‘샤프롱(chaperon)’ 제도를 도입하여 아역 배우들의 학습 시간, 최대 공연(리허설 포함) 시간, 최소 휴식(식사 포함) 시간 등을 포함하여 공연장이나 촬영장에서 아역배우를 보호하고 있음
- 일부 공연예술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샤프롱 제도를 대중예술분야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예술인 활동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 기획사, 제작사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포함된 콘텐츠 제작 비용에 샤프롱 비용 포함 의무화하며, 필요시 해당 비용 지원

■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표준계약서 필요

-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계약서로, 연습생과 아이돌을 대상으로 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순수예술)에서 미술, 공예, 공연예술, 만화, 애니메이션, 대중문화, 방송, 영화, 출판, 저작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처럼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표준계약서 개발이 필요

8) 비즈한국,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16세는 고령” 연습생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24.8.21.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126>

4. 조례상 청소년 문화예술인 재정의

1) 현황

- 현재 만 19세로 조례상 제정됨. 순수예술 전공자들은 입시 이후에, 대중문화 전공자들은 데뷔 시기(주요 데뷔 나이, 16~19세) 이후에 심리적 불안감 확대
- 진로 고민의 시기가 중3이나 고3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 해당 기점 이후의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의 심리 및 진로상담을 통해 심리 안정화 및 직업 전환 제안 등이 필요

2) 제안

- 다른 청소년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활동법>에 따르면 ‘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음

VI

부록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설문지 양식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실태조사

11. 개인 전공 외 교과수업 내용(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약간 이해하지 못한다	보통이다	약간 이해한다	이해한다	모두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학교 수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생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3.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약간 부족하다	보통이다	약간 충분하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1. (13-①②③의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야간 자율학습
- ② 학원, 과외
- ③ 전공 관련 개인 연습
- ④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 ⑤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⑥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 ⑦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 ⑧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 ⑨ 기타()

14. 평소 휴식/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약간 부족하다	보통이다	약간 충분하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1. (14-①②③의 경우) 평소 휴식/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정규 교육 시간
- ② 학원, 과외 등 사교육
- ③ 전공 관련 연습
- ④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 ⑤ 기타()

신체적 건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5.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약간 건강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건강하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전공 관련 연습 중에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음	1년에 1~2회	1달에 1~2회	1주에 1~2회	1주에 3회 이상	매일
①	②	③	④	⑤	⑥

16.1. (16-②③④⑤⑥의 경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 ① 수업을 중단하고 병원에 갔다
- ② 개인적인 시간에 병원에 다녀왔다
- ③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다
- ④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6.1.1. (16.1-④의 경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 ②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았다
- ③ 연습에 방해가 될까봐 받지 않았다
- ④ 부모/교사/강사의 질타가 두려워 받지 않았다
- ⑤ 치료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받지 않았다
- ⑥ 기타()

23.1. (23-②③④⑤⑥⑦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과의 갈등(간섭, 차별대우, 지나친 기대, 무관심, 학대 등)
- ② 형제자매와의 갈등
- ③ 가정형편(경제적 어려움, 집안환경, 부모의 불화, 별거, 이혼 등)
- ④ 교사, 학교강사 및 입시강사와의 갈등
- ⑤ 친구, 선후배 관계(폭력, 따돌림, 선후배 관계, 이성 문제, 친구와의 갈등 등)
- ⑥ 성적(시험, 입시), 진로에 대한 불안 및 부담
- ⑦ 학업(과도한 연습량, 숙제, 과제, 학원)
- ⑧ 건강문제
- ⑨ 외모(키, 체형, 생김새 등)
- ⑩ 기타()

24. 최근 1년 동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5.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아파서 상담/심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5.1. (25-①의 경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상담/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 ① 학교 내 상담실/상담선생님 방문(위클래스) ② 학교와 연계된 심리상담센터 방문(위센터 등)
- ③ 공공 상담센터 방문(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④ 개인적으로 상담 기관 방문
- ⑤ 기타()

25.2. (25-②의 경우) 상담/심리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②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 ③ 학업에 방해가 될까봐 ④ 부모/교사/강사의 질타가 두려워서
- ⑤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싫어서 ⑥ 진료기록 유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⑦ 기타()

자유선택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6.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모님은 평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모님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모님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입시강사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진학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다음은 의사결정 시 교사/강사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선생님(교사/강사)은 평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선생님(교사/강사)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선생님(교사/강사)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진학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선생님(교사/강사)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선생님(교사/강사)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격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8.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한 번도 없음	1 년에 1~2회	2~3개 월에 1~2회	1 달에 1~2회	1주에 1~2회	1주에 3~4회	1주에 5회 이상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협박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희롱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따돌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글이 퍼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현재 본인이 지닌 권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매우 낮다	낮다	약간 낮다	보통이다	약간 높다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1. (42-①의 경우) 진로상담을 받았다면, 진로상담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2. (42.1-①②③) 진로상담에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아서
- ② 상담자가 희망하는 진로를 잘 알지 못해서
- ③ 형식적으로 상담이 진행돼서
- ④ 기타()

43. 현재 선택한 진로 외 다른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43.1. (43-①의 경우)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진로로 성공할 자신이 없어서
- ② 현재 진로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 ③ 현재 진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 ④ 경쟁이 너무 힘들어서
- ⑤ 다른 진로에도 관심이 있어서
- ⑥ 기타()

43.2. (43-②의 경우)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진로가 재미있고 잘할 자신이 있어서
- ② 다른 진로에 대해 잘 몰라서
- ③ 현재 진로 말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 ④ 다른 진로에 대해 흥미가 없어서
- ⑤ 기타()

44. 현재 선택한 진로 외 다른 진로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44.1. (44-①의 경우)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아보았습니까?

- ① 진로·취업 정보 포털 사이트(커리어넷, 워크넷, 어디가, 하이파이드 등)
- ② 진학 희망 대학 홈페이지
- ③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④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유튜브 등)
- ⑤ 원격 영상 진로멘토링
- ⑥ 진로선생님(진로전담교사)
- ⑦ 담임선생님
- ⑧ 학부모, 가족
- ⑨ 학원
- ⑩ 전공 관련 회사 홈페이지
- ⑪ 친구
- ⑫ 수만취, 오르비 등 입시 커뮤니티
- ⑬ 기타()

44.2. (44-②의 경우)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귀찮아서
- ②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몰라서
- ③ 시간이 없어서
- ④ 현재 선택한 진로가 뚜렷해서
- ⑤ 기타()

45. 현재 선택한 진로 외 다른 진로로 변경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늦었다	늦었다	약간 늦었다	보통이다	약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전혀 늦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프티콘 제공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취급 위탁 동의

46. 본 설문에 참여·완료하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에게 추첨을 통해 약 5천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프티콘 제공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취급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개인정보 제공받는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주)장애파트너스그룹	핸드폰 번호	'2024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모바일 기프티콘 제공	1년간 보관 및 활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관련 기프티콘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① 네, 동의합니다
-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사종료)

46.1. (46-①의 경우) 기프티콘을 제공받을 핸드폰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